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변화 분석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of the 1st  
New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이 승 욱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경제기반을 분석하여 신도시별 산업구조 변화와 시대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기반은 그 도시의 위상과 특성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어떠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도시별 자족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용이 할 것이며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의 특성상 주택중심의 도시건설에서 나타나는 초기 산업구조와 도시성숙기에 접어든 현재의 산업구조를 비교함으로써 無에서 有로 창출되는 고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제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신도시들의 산업을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입지계수와 변화-할당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서울시와 비교하여 기반산업들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았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경제기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주거중심의 택지개발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고용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둘째,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는 건설초기 비생산형 중심에서 현재는 생산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셋째, 수도권 1기 신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생산형 산업 중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구조변화가 일어나 고용의 질적 제고와 함께 고용기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시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고용기반의 생산형 산업들은 입지적 요건, 주변 환경, 인프라 시설,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신도시별 특화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건설완료를 앞두고 있는 신도시들의 고용기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

업 유치와 함께 질 높은 도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단기간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이 유동성 있는 계획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신도시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주요어 : 신도시, 산업구조, 경제기반, 경제기반 자족성

◆ 학 번 : 2007-22318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4
3. 연구의 범위 .....	6
4. 연구 흐름도 .....	7
II.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	8
1. 이론 고찰 .....	8
1) 경제기반(economic base) .....	8
2) 신도시와 자족성 .....	10
3) 신도시의 경제기반 자족성 .....	12
4)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	14
2. 선행 연구의 검토 .....	17
1) 1990년 중반 이후의 1기 신도시 평가 .....	17
2) 2000년도의 1기 신도시 평가 .....	18
III.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현황 .....	22
1. 인구 및 종사자수 변화 .....	22
2. 수도권 1기 신도시건설 계획 및 입지적 특성 .....	24

3. 지자체별 경제·산업계획 .....	25
1) 성남시(분당신도시) .....	25
2) 고양시(일산신도시) .....	26
3) 안양시(평촌신도시) .....	26
4) 군포시(산본신도시) .....	27
5) 부천시(중동신도시) .....	27

#### IV.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 .....

1. 분당 신도시 .....	28
2. 일산 신도시 .....	29
3. 평촌 신도시 .....	30
4. 산본 신도시 .....	31
5. 중동 신도시 .....	32

#### V.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

1.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	33
1) 분당 신도시 .....	33
2) 일산 신도시 .....	41
3) 평촌 신도시 .....	49
4) 산본 신도시 .....	56
5) 중동신도시 .....	61

2. 비생산형 산업의 경제기반 분석 .....	66
1) 1995년 1기 신도시 건설초기 비생산형 경제기반 분석 .....	66
2) 2010년 1기 신도시의 비생산형 경제기반 분석 .....	70
<b>VI.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별 변화-할당 모형 분석 .....</b>	<b>74</b>
1. 분당신도시 .....	74
2. 일산 신도시 .....	75
3. 평촌 신도시 .....	76
4. 산본 신도시 .....	77
5. 중동 신도시 .....	78
<b>VII. 수도권 1기 신도시 산업구조 특성 .....</b>	<b>80</b>
1. 1995년도 1기 신도시 산업구조 특성 .....	80
2. 2010년도 1기 신도시 산업구조 특성 .....	82
3. 수도권 1기 신도시별 산업구조 특성 .....	85
1) 분당 신도시 .....	85
2) 일산 신도시 .....	86
3) 평촌 신도시 .....	88
4) 산본과 중동 신도시 .....	89
<b>VIII. 결론 .....</b>	<b>91</b>
■ 참고문헌 .....	95

## 〈표 차례〉

<표 1> 생산형과 비생산형 산업분류 .....	5
<표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	6
<표 3> 수도권 5개 신도시 인구 변화(명) .....	22
<표 4> 수도권 5개 신도시 종사자수 변화(명) .....	23
<표 5> 수도권 5개 신도시 인구 대비 종사자수 비율 .....	24
<표 6>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계획지표, 토지이용계획, 서울중심과의 거리 .....	25
<표 7> 분당 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	28
<표 8> 일산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	29
<표 9> 평촌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	30
<표 12> 1995년 분당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33
<표 13> 1995년 분당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	34
<표 14> 2010년 분당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37
<표 15> 2010년 분당신도시의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	38
<표 16> 1995년 일산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41
<표 17> 1995년 일산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	42
<표 18> 2010년 일산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45
<표 19> 2010년 일산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	46
<표 20> 1995년 평촌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49
<표 21> 1995년 평촌 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	50
<표 22> 2010년 평촌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53
<표 23> 2010년 평촌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	54



<표 24> 1995년 산본신도시 생산형 산업 LQ .....	56
<표 25> 1995년 산본 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	57
<표 26> 2010년 산본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58
<표 27> 2010년 산본 생산형 산업 LQ .....	59
<표 28> 1995년 중동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61
<표 29> 1995년 중동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	61
<표 30> 2010년 중동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	63
<표 31> 2010년 중동신도시의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	64
<표 32> 1995년 1기 신도시 및 서울의 비생산형 산업 LQ .....	66
<표 33> 2010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비생산형 산업 LQ .....	70
<표 34> 분당 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4
<표 35> 분당 신도시 생산형 세부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5
<표 36> 일산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5
<표 37> 일산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6
<표 38> 평촌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이-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6
<표 39> 평촌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이-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7
<표 40> 산본 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이-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7
<표 41> 산본 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이-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8
<표 42> 중동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이-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8
<표 43> 중동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이-할당 분석(1995년-2010년) .....	79
<표 44 > 1995년과 2010년의 비생산형 산업 LQ .....	81
<표 45> 1995년 1기 신도시 생산형 및 비생산형 산업 LQ .....	82
<표 46> 2010년 1기 신도시 생산형 및 비생산형 산업 LQ .....	83

<표 47> 분당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	86
<표 48> 일산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	87
<표 49> 평촌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	89
<표 50> 산본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	90
<표 51> 중동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	90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흐름도 .....	7
〈그림 2〉 1995년 분당과 서울의 통화금융기관 비교 .....	35
〈그림 3〉 1995년 분당과 서울의 보험 및 연금업 비교 .....	35
〈그림 4〉 1995년 분당과 서울의 금융관련 서비스업 비교 .....	35
〈그림 5〉 1995년 분당과 서울의 범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비교 .....	36
〈그림 6〉 1995년 분당과 서울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교 .....	36
〈그림 7〉 1995년 분당과 서울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교 .....	36
〈그림 8〉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교 .....	39
〈그림 9〉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전기통신업 비교 .....	39
〈그림 10〉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비교	40
〈그림 11〉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비교	40
〈그림 12〉 1995년 일산과 서울의 통화 금융기관 비교 .....	42
〈그림 13〉 1995년 일산과 서울의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비교 .....	43
〈그림 14〉 1995년 일산과 서울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비교 .....	43
〈그림 15〉 1995년 일산과 서울의 전문 디자인업 비교 .....	43
〈그림 16〉 1995년 일산과 서울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교 .....	44
〈그림 17〉 1995년 일산과 서울의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비교 .....	44
〈그림 18〉 1995년 일산과 서울의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교 .....	44
〈그림 19〉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비교	47
〈그림 20〉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비교 .....	47
〈그림 21〉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전기통신업 비교 .....	47

<그림 22>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교 .....	48
<그림 23>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수의업 비교 .....	48
<그림 24>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통화 금융기관 비교 .....	50
<그림 25>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보험 및 연금업 비교 .....	51
<그림 26>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금융관련 서비스업 비교 .....	51
<그림 27>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비교 .....	51
<그림 28>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교 .....	52
<그림 29>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교 .....	52
<그림 30> 2010년 평촌과 서울시의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비교 .....	55
<그림 31> 2010년 평촌과 서울시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비교	55
<그림 32> 1995년 산본과 서울시의 통화금융기관 비교 .....	57
<그림 33> 1995년 산본과 서울시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교 .....	57
<그림 34> 2010년 산본과 서울시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비교 .....	60
<그림 35> 2010년 산본과 서울시의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비교 .....	60
<그림 36> 2010년 산본과 서울시의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비교 .....	60
<그림 37> 1995년 중동과 서울시의 전기 및 통신공사업 비교 .....	62
<그림 38> 1995년 중동과 서울시의 통화금융기관 비교 .....	62
<그림 39> 1995년 중동과 서울시의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교 .....	62
<그림 40> 2010년 중동과 서울시의 보험업 비교 .....	65
<그림 41> 2010년 중동과 서울시의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비교 .....	65
<그림 42> 2010년 중동과 서울시의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교 .....	65
<그림 43>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도매 및 소매업 비교 .....	67
<그림 44>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숙박 및 음식점업 비교 .....	67

<그림 45>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비교	68
<그림 46>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교육서비스업 비교 .....	68
<그림 47>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비교 .....	69
<그림 48>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비교	69
<그림 49>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비교	69
<그림 50>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도매 및 소매업 비교 .....	71
<그림 51>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숙박 및 음식점업 비교 .....	71
<그림 52>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	72
<그림 53>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	72
<그림 54>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교 .....	72
<그림 55>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교	73
<그림 56>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교	73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도시기능 확대와 인구증가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새로운 도시기능을 위한 용지확보와 주택부족 문제 해결이 도시계획의 핵심적 화두로 다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말 주택건설 공급부진과 맞물려 야기된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폭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이현주 외, 2012). 이에 정부에서는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 및 중산층의 강남지역 거주선호와 중대형아파트 선호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수도권일대의 녹지를 대규모택지로 개발하여 각종 생활편익시설과 우수학교 등을 유치하고 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균형 있게 건설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한국토지공사, 1991).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정착한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신도시를 평가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한 것은 바로 신도시의 자족성이다.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서울에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도시로 성장함으로써 서울의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교통혼잡, 환경문제 등을 최소화시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이상명, 2011).

그 동안의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자족성 평가를 살펴보면 건설 초기에는 신도시주변의 난개발,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망의 교통혼잡, 신도시의 Bed Town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주된 경향이었다. 특히 신도시 자체의 자족성 결여와 직결되는 Bed Town화는 직장과의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었다(송영섭, 1999; 배순석, 2000; 전명진, 2000).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함께 나타났다(김현수, 2005). 최근 다수의 연구들은 1기 신도시의 자족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김현수, 2007; 안국현, 2006; 이창무, 2001; 장준상, 2006; 정다운, 2010; 한국토지공사, 2006).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직주 불균형 현상 및 교통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등, 초기 신도시 개발의 사회적 부의 현상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도시가 지역의 업무 중심으로 성장하여 신도시 지역 및 주변지역의 서울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희연 외, 2008).

자족성이 높으면 바람직한 신도시라는 인식이 있으나,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가 생활기반과 생산기반에서 완벽한 자족성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거위주의 택지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이라는 국가차원의 정책기조 때문에 제조업의 계획적 입지가 어려운 수도권의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고용자족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허재완, 2001). 즉 일자리 확보 없는 주택공급을 위주로 신도시를 건설하다보니, 서울 등 대도시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주변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초래하며, 신도시의 공동체 형성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신도시의 자족성을 논의 할 때 우리는 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경제기반(economic base)에 대해 논의 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신도시가 갖는 경제기반에 따라 신도시의 이미지, 규모, 공간구조, 교통축, 토지이용패턴 등 도시의 성격이 많은 양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한 도시의 경제기반은 그 기능과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허재완, 2001). 따라서 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경제기반을 논의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산업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시

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경제기반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산업구조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건설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시대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기반은 그 도시의 위상과 특성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1기 신도시의 특성상 주택중심의 도시 건설에서 나타나는 초기 산업구조와 도시성숙기에 접어든 현재의 산업구조를 비교함으로써 無에서 有로 창출되는 고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산업구조변화 분석은 신도시들의 경제기반을 파악하고 향후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건설을 완료했거나 건설 중인 2기 신도시들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산업구조변화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측면에서 신도시의 경제기반과 분석방법에 대해 규명하고 바람직한 경제기반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제기반 평가를 검토한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신도시 건설 초기인 1995년과 현재 시점인 2010년까지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방법은 신도시 산업분류를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인구 1,000명당 산업별 종사자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 LQ), 변화-할당 모형(Shift-Share Model)을 통해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한다.

신도시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서 생산계 고용을 가정하여 크게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한다<sup>1)</sup>. 생산형 산업들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2차산업)으로 대표되며, 오늘날에는 생산자서비스업(4차산업)등을 포함한다. 비생산형은 소비자서비스업(3차산업)에 의해 대표된다.

생산형과 비생산형 산업들의 입지계수(LQ)를 산출하여 신도시의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한다. 또한 서울시와의 비교를 통해 기반산업들 특화 수준을 알아본다. 입지계수는 도시의 산업구조를 전국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고용구조를 살펴보는데 활용되고 있다.

고용기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산형 산업들은 변화-할당모형(shift-share model)을 통해 입지계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세부적인 성장구조를 분석한다. 변화-할당모형은 도시경제성장의 구조적 분석, 특히 도시산업성장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들을 보다 효과적

---

1) 한국토지주택공사(2009), 「2기 신도시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에서 산업분류를 생산계 고용으로 가정하여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

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1995년 건설 초기 신도시들의 산업구조와 2010년 현재 신도시들의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그 변화와 시대별 특성과 신도시별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표 1> 생산형과 비생산형 산업분류

구분	산 업 분 류
생 산 형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생산형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와 비교 분석을 위해 서울시를 포함 한다. 각 신도시들의 범위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택지개발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행한 ‘토지개발사업총람’과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총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해당하는 행정동을 경계로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1개 신도시가 모도시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자체의 경제기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모도시 및 주변 택지개발지구는 제외시킨다. 서울시의 분석단위는 區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행정동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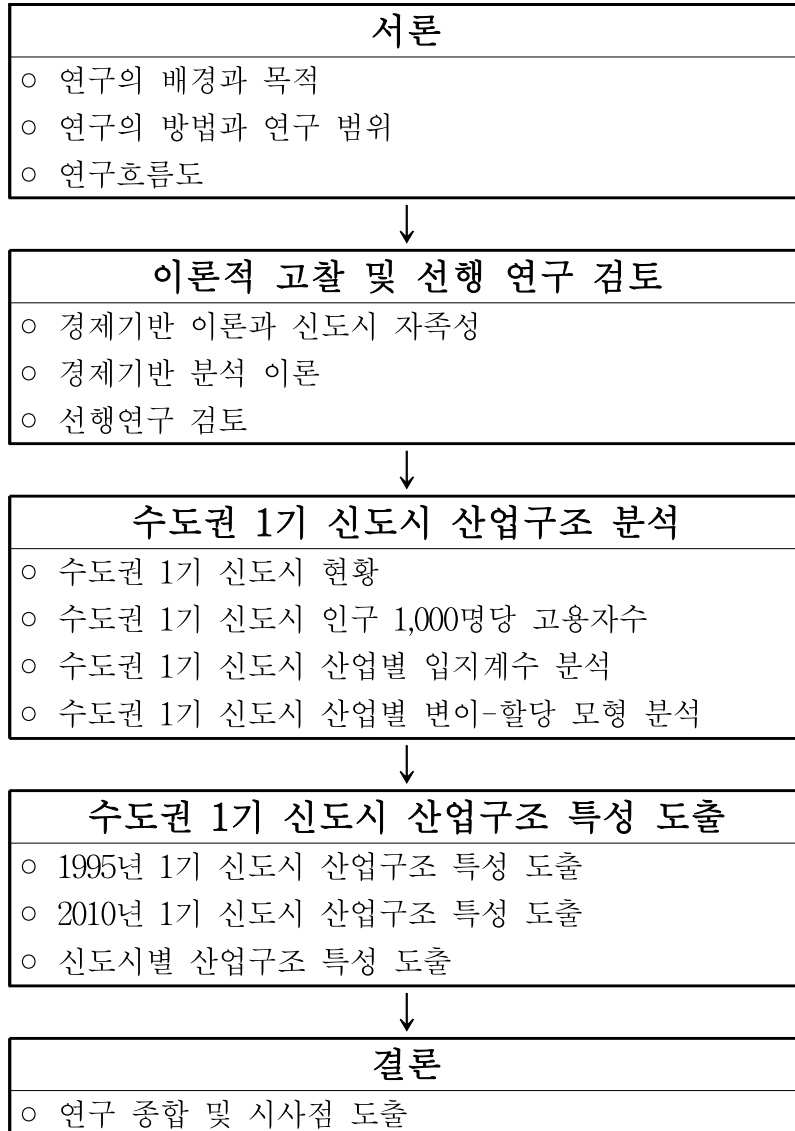
<표 2> 연구의 공간적 범위

신도시	행정동
분당	성남시(야탑1,2동, 이매2동, 수내1,2,3동, 서현2동, 분당동, 정자1,2,3동, 구미동)
일산	고양시(대화동, 일산1,2,3동, 주엽1,2동, 정발산동, 마두1,2동, 장항2동, 백석1,2동)
평촌	안양시(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평안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귀인동)
산본	군포시(산본2동, 광정동, 궁내동, 재궁동, 오금동)
중동	부천시(중1,2,3,4동)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입주 완료 시점인 1995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분석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다. 산업분류는 대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특정 산업에 따라 소분류까지 분석한다. 1995년 산업대분류는 KSIC 8기준, 2010년은 KSIC 9을 기준으로 한다.

## 4. 연구 흐름도

<그림 1> 연구흐름도



## Ⅱ. 이론 고찰 및 선행 연구 검토

### 1. 이론 고찰

#### 1) 경제기반(economic base)

경제기반이란 용어는 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경제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경제기반이론이란 도시를 떠받들고 있는 경제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도시 경제는 기반활동(basic activities)와 비기반활동(nonbasic activities) 두 가지 큰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 경제의 기반활동은 도시경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능이며 비기반활동은 도시경제의 자족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기반활동은 도시 산업의 수출분야를 의미하고 비기반활동은 도시 산업의 비수출분야를 의미한다. 산업의 수출분야는 도시건설자 또는 도시성장의 유도자이다. 그리고 산업의 비수출분야는 도시공급자 또는 도시 봉사자라고도 한다.

수출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이를 좀더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지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인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입산업이란 지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전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수출산업과 수입산업의 구분은 민간부문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적용된다. 중앙정부 기관이나 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단위의 지방정부기관의 행정 서비스도 지역의 수출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전국 또는 광역 행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정 서비스는 지역 밖으로 수출하고 전국이나 광역 지역별로 징수되는 세금은 수출된 행정 서비스

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지역 거주자들의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이 나 읍, 면 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은 수입산업이다.

이처럼 도시 경제에 대한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도시경기반 이론이라고 한다(김영모, 1999). Charles Tibout은 경제기반이란 첫째, 도시는 도시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생산하지 못한다. 또한 도시는 도시가 생산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지도 못한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팔고 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 수입한다.

둘째, 도시에 있는 어떤 산업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이것을 다른 지역에 팔고 돈을 벌어들인다. 벌어들인 돈은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 오는데 사용되고 그리고 도시의 또 다른 경제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셋째, 따라서 도시의 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들일수록 도시의 경제는 활성화되고 또한 도시는 성장한다. 반대로 돈을 적게 벌들이면 들일수록 도시의 경제는 정체되고 그리고 도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도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것을 다른 지역에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을 수출산업이라고 하고 이 같은 수출산업을 경제기반이라고 한다.

## 2) 신도시와 자족성

신도시의 개념은 1919년 영구의 전원도시 및 도시계획협회에서 최초로 개념화되었다. Howard(1902)는 자신의 저서 ‘Garden City of Tomorrow’를 통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되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인구는 최고 3만 명으로 하며 도시는 농경지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토지이용은 혼합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전제로 하여 사회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와 구상을 제시했다(안효빈, 1996).

그 이후, 신도시는 단순한 전원도시의 건설시 고려되었던 요인들 보다 좀 더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도시의 부족한 주택 확보와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한 전략으로 발전한다. 이에 신도시의 개념도 초기 전원도시와 같은 이상적인 정주형태의 단순한 의미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이 가미된 보다 확장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권유철, 2002).

L.Rodwin(1956)은 신도시개발의 목적은 대도시의 혼잡을 구제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하며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고 한다. W.Robson(1967)은 신도시는 주택, 산업,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포함하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개발단위로 개발되어 가능한 한 대도시와는 구별되고 새로운 도시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B.Renaud는 신도시는 전적으로 새롭고, 계획된 도시지역으로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에는 주민이 이주하여 거주해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업을 제공하고, 신도시가 경제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상업적인 기업과 공장에 매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도시는 대도시의 주변지역에 형성되는 위성도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M.Goertz(1971)는 신도시를 반드시 모도시와 구분되는 측면에서 이해하지 않고 모도시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신도시가 경제

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도시기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임재현 외, 2008).

우리나라 신도시는 1960년대 울산과 포항의 신시가지 개발 및 1970년대의 여미, 창원, 광양, 반월 등의 산업기지로서의 신도시, 그리고 1980년대의 서울 목동 신시가지 및 1980년대 후반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의 수도권 신도시 등이 개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도시의 개념을 살펴보면, 기존도시의 재개발 내지는 재편성에 의한 공업기능위주의 도시로, 주택과 기타 기능이 부가적인 목적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철저한 배후 산업도시로의 개발을 위한 신도시가 개발되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여 주택도시로의 개발 또는 위성도시로의 개발도 포함을 하기도 하며, 분당, 일산의 경우처럼 자족적 도시의 표방을 목적으로 하기도 했다. 또한 신도시의 개념을 종합적인 계획 하에 개발이 되는 새로운 주택도시, 위성도시, 자급자족적 도시, 전략도시, 지역거점도시, 공업도시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새로운 도시를 신도시의 광의적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협의로는 모도시의 주변에 일정거리를 두고 모도시의 일부기능을 넘겨받아 사회,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안효빈, 1996).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신도시는 모도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과 목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계획도시이지만, 모도시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즉 신도시는 모도시의 일부기능 분할하여 담당하지만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3) 신도시의 경제기반 자족성

신도시의 바람직한 경제기반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준 중의 하나는 경제적 자족성이라는 개념이다. 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생산과 소비의 자족성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상당부분이 그 도시에서 생산되고 동시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그 도시 내에서 소비하는 것이 충분한 경우, 그 도시를 자족적이라 한다. 한 도시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족이란 도시의 경계 내에서 도시가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소비하여 도시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기반을 갖춘 경우이다. 이러한 자족적 도시가 되지 위해서는 인구규모에 어울리는 경제활동 규모와 도시기능을 보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성장의 잠재력과 활력을 갖추어야 한다(허재완, 2001).

보통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을 언급할 때 생산의 자족성보다는 고용의 자족성을 의미한다. 즉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해당 도시 내에서 생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모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느냐는 관점을 경제적 자족성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결국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도시내의 취업기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 충분한 취업기회인 고용기반 자족성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시 내에서 제공되는 생활기반 자족성이 충족될 수 있다(허재완, 2001).

J.A.Clapp은 “자족적 신도시라 함은 한 도시가 그 노동력의 고용에 있어 모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기유지적(self-sustaining)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동시에 클랩은 자족적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내 고용에 있어서 충분한 취업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도시내 제공되어 도시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서도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Golany는 신도시의 자족성 혹은 독자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첫째, 경제적 자족도(degree of self-containment), 둘째, 사회적 균형도(extend to which it is a balanced community), 셋째 토지이용 패턴의 다양성(diversity of land-use patterns), 넷째, 정치적 자치도(degree of self-government)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특성을 자족형 신도시와 비자족형신도시를 비교하면서, 자족형 신도시는 대개 대도시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고립된 환경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비교적 견고한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개발목표도 주택공급 이외에 국가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되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비자족형신도시의 기성도시의 내부, 또는 연결하여 건설되는 비교적 소규모의 정주공간으로 일자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집단 주택지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야간 인구조로 구성되며, 계획도 사회경제적인 면보다는 물리적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생산과 소비의 자족을 의미한다. 생산의 자족성은 고용의 자족을 의미하며 모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를 자족적이라고 한다. 결국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도시내 고용에 있어서 충분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시 내에서 제공되어야 충족될 수 있다.

---

2) Gideon Golany, New Town Planning : Principles & Practice, John Wiley & Sons, 1976

#### 4) 경제기반모형(economic base model)

경제기반모형은 한 도시나 지역의 경제구조 및 성장의 건전성을 규명하는 분석기법으로 프랑스의 Charles Tiebout와 미국의 Homer Hoyt, A. M. Weimer 등에 의해 개발되고 체계화되었다. 경제기반모형에서는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을 크게 기반산업(basic industries)과 비기반산업(non-basic industries)로 구분된다. 기반산업이란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지역 외부에 의해 소비되는 산업을 의미한다. 비기반산업이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지역내 전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반산업은 나아가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으로 구분된다. 수출산업은 그 산업 제품 모두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재화는 지역 내부와 지역 외부에서 소비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역 내 산업 고용인구는 지역내 산업의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구와 지역 내 산업의 수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구의 합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역 내 산업의 경제규모는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로 나타난다.

##### (1)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

지역의 수출량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입지계수법(location quotient)이 사용된다. 입지계수법은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지역특화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산업 $i$ 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된다. 이러한 산업의 특화도는 다음과 같이 산업별 인지계수(LQ $i$ )로 나타난다.

$$LQ_i = \frac{\frac{E_i^r}{E^r}}{\frac{E_i^n}{E^n}} \quad \cdot E_i^r(E_i^n) : \text{지역 } r(\text{전국}) \text{의 사업 } i \text{에 종사하는 고용인구}$$

$$\quad \cdot E^r(E^n) : \text{지역 } r(\text{전국}) \text{의 전체 고용인구}$$

이렇게 계산된 입지계수 값이 1보다 크면  $r$ 도시는  $i$ 산업의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i$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비율보다 큰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산업의 재화나 서비스는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고 잉여분을 외부로 수출하는 특화된 산업을 의미한다. 반대로 입지계수 값이 1보다 작으면  $r$ 도시는  $i$ 산업의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i$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입지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전국에 비해 지역산업의 특화가 되지 않은 산업을 의미하며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 지역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해야 한다. 만약 입지계수가 1이나 그 이상이 되면  $r$ 도시는  $i$ 산업 제품을 자급자족하게 되고,  $r$ 도시의  $i$ 산업은 모두 비기반활동으로 간주 된다.

## (2) 변화-할당모형(shift-share model)

D. B. Creamer에 의해 1942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이래 활용되기 시작한 변화-할당모형(shift-share model)은 도시경제성장의 구조적 분석, 특히 도시산업성장의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원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지역의 산업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을 크게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외적 요인은 해당 지역의 외부에서 양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국의 경제성장이 지역의 외부적인 수요를 증가시켜 산업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요인은 지역 지닌 특수성으로 인한 성장요인을 의미한다. 변화-할당모형은 이러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성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변화-할당모형이 가정하고 있는 지역성장의 내·외적 요인은 국가전체의 성장요인(national share), 산업구조적 요인(industry mix), 지역의 경쟁력 요인(local factor)으로 구분된다. 국가전체의 성장요인은 전국의 경제 성장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산업구조적 요인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특징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말

한다. 지역의 경쟁력 요인은 지역이 지닌 특수한 생산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장의 효과이다.

$$\text{총성장} = V_{ij}(t) - V_{ij}(0) = Ng + Im + Rs$$

단,  $V_{ij}(t)$  = 대비 연도(t)에 있어 j도시 i산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자 수

$V_{ij}(0)$  = 기준연도(0)에 있어 j도시 i산업의 부가가치 또는 고용자 수

$Ng$  = 전국경제성장효과

$Im$  = 산업구조효과

$Rs$  = 지역할당효과

산업성장의 요인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변화-할당분석은 총성장(total growth)은 분석기간 동안 j도시 i산업의 부가가치 혹은 고용의 총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값이 (+) 혹은 (-)에 따라 분석기간 동안 j도시 i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j도시 i산업의 총성장은 세 가지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 1) 1990년 중반 이후의 1기 신도시 평가

1990년 중반의 1기 신도시 평가는 주로 개발방식, 개발이익 분배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공급으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 및 인구분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기능분산과 자족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평가 지표 설정과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이 활용되었다.

임윤수(1996)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상업용지 미개각 및 상업편익시설의 미입주 문제를 지적했다. 1997년 개방 예정이었던 농산물유통센터의 착공 연기, 7개 대형백화점의 미착공 등으로 야채류 등 식품류 가격 상승과 서울 원정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늦은 입주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안효빈(1996)은 1기 신도시가 개발 초기 자족성을 갖추지 못하고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원인을 택지분양이 우선조건으로 고려되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없었던 신도시 개발의 구조적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신도시의 자족성 핵심적 요건으로 고용시설의 확보, 공공서비스시설의 확보, 생활편익시설의 구비 등을 언급했다.

신원득(1997)은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인구변화와 특성을 도출하는 연구에서 신도시의 기능진단을 위해 생산기능, 소비기능, 적응·연계기능 부문으로 지료를 구분하여 평가했다. 그 결과 신도시의 생산기능이 낮다는 평가를 통해 생산력 창출, 제조업체 및 공공기관의 유치와 경제적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송영섭·이동규(1999)는 수도권 신도시를 주택공급효과와 인구분산, 기능분산, 자족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자족성 효과 미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사무 등의 관리직은 신도시 내에 직장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낮은 반면, 판매종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신도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직장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주거만 이동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소득액이 낮은 가구일수록 직장과 주거가 동시에 신도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물품구매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내활동은 신도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화, 스포츠, 박물관, 미술관 관람 같은 문화 활동은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의 문화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 2) 2000년도의 1기 신도시 평가

2000년대에 들어서 1기 신도시들에 대한 자족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2000년대 초반에는 소비패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필요재화나 생필품에 대한 신도시 내 구매력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도시의 베드타운화 등 고용자족성은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통근통행과 고용자 수 등을 분석하여 고용자족성도 점차 확보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김현식 외(2000)는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연구에서 신도시의 주거기능 위주의 베드타운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말의 주택시장위기로부터의 탈출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거기능 이외의 도시기능 유치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개발제도 면에서도 저렴한 주택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개발됨에 따라 공

업지역이 포함되지 못하는 등 자족적이고 다양한 도시기능 부여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다.

허재완(2001)은 수도권 신도시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경제적 자족성을 고용기반과 생활기반 자족성으로 나누어 수도권 신도시들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계획적 입지가 어려운 수도권의 신도시는 고용 자족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생활서비스 소비업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어 신도시의 생활기반 자족율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창무(2001)는 분당신도시의 교외부도심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진단의 첫걸음으로써 분당 신도시 상업지역에 대한 상권형성 과정을 주민의 구매형태의 변화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 위성도시의 자족성의 측면에서 생각하여 볼 때 1) 분당신도시의 쇼핑통행에서의 중심성 향상은 분당신도시의 성격이 아직도 형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해석하고, 2) 분당이 주변 경기도지역에 있어 두드러진 상업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3)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현재의 정책적 결정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의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분당내 중심상업지구는 미래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상대적인 적합성이 높은 그릇임을 주장하고 있다.

권유철(2002)은 분당 신도시의 전반적인 자족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당신도시는 산업을 형성학 위한 충분한 인구가 유입되었지만 산업시설이 주박하여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도시기반 시설도 시설 간의 양적인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필요해서 신도시 자체의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해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현수(2005)는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기반, 특히 고용기반의 실태를 분석하여, 과연 신도시건설이 일자리의 확보에 실패하였는가를 살피고,



앞으로의 신도시건설에 있어 자족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첫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자족시설용에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이 조정되어야 하고, 서울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통행율의 차이를 고려한 자족시설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족기능의 유치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이를 담당할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혹은 도시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준상·이창무(2006)는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통하여 1996년과 2002년 사이 신도시와 신도시 주변 지역의 자족적 수준과 통행 패턴 변화를 고용기회와 쇼핑기능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신도시 건설에서 목표했던 기능이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신도시 건설이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공간적인 자족성 구조를 파악하고 신도시의 추가적인 자족 수준 향상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고용기회 측면에서 5개 신도시들의 서울 의존도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 통행을 이용한 분석에는 신도시들의 쇼핑기능이 정착되어 서울의존도가 크게 떨어지고 주변지역의 쇼핑인구를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현(2006)은 수도권내 신도시가 소재한 도시를 비롯한 여타 기성도시들의 자족도 및 상호 교류관계를 정략적으로 파악하여, 도시상호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다운(2010)은 2006년에 조사된 수도권 O-D자료를 이용해서 5개 신도시의 자족성 및 중심성의 정도를 파악했다. 또한 신도시가 속해 있는 모도시 및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의 비료를 통하여 신도시의 자족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연구의 결과는 1) 고용 측면에서는 5개 신도시 모두 직주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고, 2) 생활측면에서는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4개 신도시는 비교적 높은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3) 이러한 고용과 생활측면의 자족

중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 생활측면의 자족성은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고용측면에서 있어서는 자족성이 낮고, 직주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Ⅲ.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현황

#### 1. 인구 및 종사자수 변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분당과 일산, 중동 신도시의 인구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 증가했다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과 중동 신도시는 모도인 성남시와 부천시 인구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의 인구증가는 해당 신도시보다는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수도권 5개 신도시 인구 변화(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성남시	869,094	914,590	934,984	949,964	9.3%
분당신도시	165,049	247,231	270,129	260,039	57.6%
그 외	704,045	667,359	664,855	689,925	-2.0%
고양시	518,282	763,971	866,846	905,076	74.6%
일산신도시	264,673	337,793	344,444	338,341	27.8%
그 외	253,609	426,178	522,402	566,735	123.5%
안양시	591,106	580,544	612,423	602,122	1.9%
평촌신도시	150,068	154,732	150,187	147,177	-1.9%
그 외	441,038	425,812	462,236	454,945	3.2%
군포시	235,233	263,760	270,042	278,083	18.2%
산본신도시	125,467	137,460	130,632	125,339	-0.1%
그 외	109,766	126,300	139,410	152,744	39.2%
부천시	779,412	761,389	838,801	853,039	9.4%
중동신도시	96,562	115,359	115,166	120,744	25.0%
그 외	682,850	646,030	723,635	732,295	7.2%

자료 : KOSIS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5개 신도시 모두 종사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신도시 모두 모도시의 종사자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화와 비교해보았을 때 2000년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인구변화와는 달리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수도권 5개 신도시 종사자수 변화(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증가율
성남시	147,051	179,490	249,483	310,514	111.2%
분당신도시	14,849	38,522	84,874	96,520	550.0%
그 외	132,202	140,968	164,609	213,994	61.9%
고양시	83,788	138,351	187,191	237,190	183.1%
일산신도시	24,800	59,626	78,517	100,907	306.9%
그 외	58,988	78,725	108,674	136,283	131.0%
안양시	159,271	157,493	178,502	214,256	34.5%
평촌신도시	13,859	31,058	43,909	50,749	266.2%
그 외	145,412	126,435	134,593	163,507	12.4%
군포시	57,405	64,768	79,450	88,496	26.2%
산본신도시	11,705	16,698	20,737	24,330	607.9%
그 외	45,700	48,070	58,713	64,166	11.5%
부천시	204,298	206,969	226,218	257,881	54.2%
중동신도시	5,031	13,255	26,480	35,616	107.9%
그 외	199,267	193,714	199,738	222,265	40.4%

자료 : KOSIS

5개 신도시 인구대비 종사자수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분당 신도시(3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촌 신도시(34.5%), 일산 신도시(29.8%), 중동 신도시(29.5%), 산본 신도시(1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46%)과 수도권(서울 제외, 인천포함) 도시 평균(34.9%)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당과 평촌은 서울보다는 낮지만 수도권 도시 평균보다는 높았고, 일산과 산본은 수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본 신도시는 수도권 도시들 보다는 아직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수도권 5개 신도시 인구 대비 종사자수 비율

신도시	1995	2000	2005	2010
분당	9.0%	15.6%	31.4%	37.1%
일산	9.4%	17.7%	22.8%	29.8%
평촌	9.2%	20.1%	29.2%	34.5%
산본	9.3%	12.1%	15.9%	19.4%
중동	5.2%	11.5%	23.0%	29.5%

※ 서울 : 46%,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 34.9%

## 2. 수도권 1기 신도시건설 계획 및 입지적 특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계획지표, 토지이용계획, 입지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계획인구는 분당(390,000명), 일산(276,000명), 평촌 및 중동(170,000명), 산본(164,048명) 순이며, 2010년 기준 인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일산 신도시만이 계획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분당(9.0%), 일산(9.7%), 중동(11.2%)이 비교적 높은 상업·업무용지 비율을 나타냈으며, 평촌(3.7%)과 산본(4.7%)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서울 강남과 시청과의 거리를 비교해 본 결과, 강남으로 부터 평촌(19.2km)이 가장 가까운 방면 일산(28.7km)이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의 경우 평촌(19.2km)이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웠으며, 분당(23.9km)이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계획 및 입지적 특성을 종합하여 인구대비 종사자수 비율과 비교해 보면, 계획인구 및 인구규모와 상업·업무용지의 비율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신도시가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계획지표, 토지이용계획, 서울중심과의 거리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계획인구(명) (2010년 인구)		390,000 (260,036)	276,000 (338,341)	170,000 (147,177)	164,084 (125,339)	170,000 (120,744)
계획세대(호)		97,500	69,000	42,500	41,021	42,500
계획면적(천평)		5,985	4,757	1,496	1,267	1,648
상업·업무용지(천평) (비율%)		537 (9.0)	460 (9.7)	55 (3.7)	60 (4.7)	184 (11.2)
주택용지(천평) (비율%)		1,936 (32.3)	1,598 (33.6)	585 (39.1)	544 (42.9)	573 (34.7)
공공시설용지(천평) (비율%)		3,512 (58.7)	2,699 (56.7)	857 (57.2)	663 (52.4)	891 (54.1)
거 리 (km)	강남	15.1	28.7	13.1	17.2	23.1
	서울시청	23.9	20.8	19.2	23.1	20.0

### 3. 지자체별 경제·산업계획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의 경제·산업계획은 신도시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다.

#### 1) 성남시(분당신도시)<sup>3)</sup>

성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공업용지의 신규지정이 불가하므로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발예정용지로 계획하여 입지를 확보하고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벤처빌딩 및 연구단지등이 입지 가능한 적정용도지역으로 계획했다.

벤처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각종 유틸리티시설을 제

3)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 참조

공, 정책적으로 창업교육 강화, 벤처기업의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 정보통신기업협의회와 연계하여 대학원 설립 유치, 부지선정, 토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적 지원강화 등을 계획했다.

## 2) 고양시(일산신도시)<sup>4)</sup>

고양시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계획적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친환경산업 조성, 지역기업간 연계 강화 및 경쟁력 제고, 상업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주요 목표로 계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핵으로 하는 자족도시 실현의 기반인 지식기반정보산업벨트를 구축(출판문화단지(파주)-한국국제전시장(KINTEX)-관광문화단지(할류우두)-지식기반정보단지-항공대-덕은동미디어벨리-상암DMC)하고 지식기반정보단지(영상산업관련업무시설, 방송 및 멀티미디어 연구 및 개발, 위락 및 상업, 주거 등)를 조성할 계획이다.

## 3) 안양시(평촌신도시)<sup>5)</sup>

안양시는 기존 입지한 공장은 공해배출이 적은 도시형 및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전환유도하여 첨단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간,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평촌-범계 시가지의 벤처벨리를 신산업축으로 설정하여 지식기반이 주도하는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달성하고 이미 두드러진 특화도를 보이고 있는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을 21세기 크게 각광 받을 수 있는 디

---

4)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참조

5)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참조

지텔 방송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핵심산업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 4) 군포시(산본신도시)<sup>6)</sup>

군포시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정보 전자상품단지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자기완결형 도시구현,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산업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기존 공장의 정비 및 이전 유도, 산업안정화를 위한 자립형 연구센터 유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및 R&D 집적시설 단지화, 군포형 금형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육성 도모 등을 통해 도시기반산업의 유지 및 첨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등 친환경산업 전략적 육성, 첨단산업단지, 멀티미디어단지 조성, IT산업 중점육성으로 군포시의 첨단산업화 및 산업구조개편 등을 통해 친환경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5) 부천시(중동신도시)<sup>7)</sup>

부천시는 산업구조의 개편·고도와,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물류·유통의 효율화를 주요 추진정책으로 삼아, 첨단산업단지 조성,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원 등을 2010년까지 계획 및 시행했다.

---

6) “2020년 군포도시기본계획” 참조

7) “2010년 비전부천” 참조



## Ⅳ.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

### 1. 분당 신도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분당 신도시의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고용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당 신도시 산업분류를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형의 경우 제조업이 1083.1%, 건설업이 2569.2%, 통신업이 984%, 사업서비스업이 2676.8%로 크게 성장하였다. 비생산형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321.7%, 교육서비스업이 25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348.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349.5% 성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생산형 산업의 성장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분당 신도시의 인구 1,000명당 고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생산형 산업보다는 생산형 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분당 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산업분류		1995	2000	2005	2010	변화율
생 산 형	제조업	0.8	7.1	27.3	9.0	1083.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0	6.7	4.5	5.1	-15.6%
	건설업	1.1	4.1	30.4	29.8	2569.2%
	운수업	1.0	2.3	7.1	8.2	743.8%
	통신업	0.7	8.0	8.3	7.6	984.0%
	금융 및 보험업	5.2	4.0	6.2	9.6	83.3%
	사업서비스업	3.2	8.4	44.6	88.3	2676.8%
비 생 산 형	도매 및 소매업	21.4	28.9	47.2	52.8	147.0%
	숙박 및 음식점업	8.8	17.8	31.5	37.2	321.7%
	부동산 및 임대업	15.8	20.7	31.3	28.7	8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	4.4	3.4	5.3	92.2%
	교육 서비스업	10.3	20.3	29.9	36.4	25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2	8.4	20.2	27.7	348.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0	4.4	7.7	8.9	349.5%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8	9.9	14.4	16.8	248.0%

## 2. 일산 신도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일산 신도시의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산 신도시 산업분류를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형의 경우 제조업이 617.5%, 건설업이 758.6%, 통신업이 4518.6%, 사업서비스업이 1079%로 크게 성장하였다. 비생산형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369.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927.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239% 성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생산형 산업의 성장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산 신도시의 인구 1,000명당 고용자 수는 분당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생산형 산업보다는 생산형 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산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산업분류명		1995	2000	2005	2010	변화율
생 산 형	제조업	1.9	13.0	15.0	13.9	617.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	0.8	1.1	1.0	-26.0%
	건설업	1.8	7.9	7.7	15.1	758.6%
	운수업	1.6	4.7	6.0	5.8	268.4%
	통신업	0.1	2.8	5.8	4.2	4518.6%
	금융 및 보험업	4.5	10.2	12.7	17.6	291.1%
	사업서비스업	2.6	7.3	12.9	30.7	1079.0%
비 생 산 형	도매 및 소매업	23.0	31.2	38.0	50.4	119.1%
	숙박 및 음식점업	13.6	23.6	35.6	40.0	194.8%
	부동산 및 임대업	15.3	16.3	16.9	17.9	16.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	3.6	5.8	9.0	369.1%
	교육 서비스업	13.6	25.5	30.5	35.4	159.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7	11.1	18.0	28.1	927.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9	6.6	8.0	9.7	23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6.8	11.8	13.8	17.9	163.5%

### 3. 평촌 신도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평촌 신도시의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업(1279.7%)과 사업서비스업(698.6%)의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촌 신도시 산업분류를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형의 경우 제조업이 497.7%, 건설업이 577.6%, 통신업이 379.2%, 사업서비스업이 698.6%로 성장하였다. 비생산형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309.2%, 교육서비스업이 245.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1279.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이 563.4% 성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생산형 산업의 성장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평촌 신도시의 인구 1,000명당 고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비생산형 산업보다는 생산형 산업이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분당과 일산 신도시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9> 평촌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산업분류		1995	2000	2005	2010	변화율
생 산 형	제조업	1.5	6.5	12.7	9.2	497.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4	1.3	1.6	1.1	-18.7%
	건설업	2.1	4.9	9.9	14.0	577.6%
	운수업	2.4	3.2	6.2	9.1	272.9%
	통신업	1.1	5.9	4.7	5.4	379.2%
	금융 및 보험업	6.8	12.5	17.8	24.9	265.6%
	사업서비스업	6.2	12.1	37.1	49.1	698.6%
비 생 산 형	도매 및 소매업	20.0	54.1	65.9	58.6	193.6%
	숙박 및 음식점업	9.1	23.0	32.3	37.4	309.2%
	부동산 및 임대업	12.5	16.7	18.7	24.0	9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7	15.3	12.6	16.8	118.4%
	교육 서비스업	14.7	23.2	37.9	50.7	245.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6	9.3	15.6	22.2	1279.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1	5.2	7.5	7.0	563.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2	7.6	12.0	15.3	263.1%

## 4. 산본 신도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산본 신도시의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2263.1%)이 지난 15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본 신도시 산업분류를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형의 경우 건설업이 294.5%, 사업서비스업이 2263.1%로 크게 성장하였다. 비생산형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534.8%, 성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산본 신도시의 인구 1,000명당 고용자 수는 생산형 산업에서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외에는 비생산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0> 산본 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산업분류		1995	2000	2005	2010	변화율
생산형	제조업	1.4	2.9	3.3	2.3	68.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5	0.6	0.4	0.5	13.4%
	건설업	3.0	3.6	8.9	11.7	294.5%
	운수업	4.3	6.3	3.9	5.3	22.2%
	통신업	2.8	1.7	2.2	1.9	-33.6%
	금융 및 보험업	3.8	4.6	6.3	5.7	50.3%
	사업서비스업	1.5	3.4	13.5	34.5	2263.1%
비생산형	도매 및 소매업	14.9	19.5	23.4	23.4	57.5%
	숙박 및 음식점업	11.0	14.4	18.7	18.3	66.1%
	부동산 및 임대업	14.0	12.6	9.8	8.7	-3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	9.8	11.5	9.2	-8.3%
	교육 서비스업	14.1	20.5	27.1	33.9	14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1	8.5	12.9	19.7	534.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6	4.9	7.6	5.4	106.6%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6.3	8.1	9.1	13.6	113.9%

## 5. 중동 신도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중동신도시의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신업(2662.7%), 금융 및 보험업(1467.8%), 사업서비스업(43277.1%), 보건 및 사회복지업(3960.7%)이 지난 15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신도시 산업분류를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산형의 경우 제조업이 373.7%, 건설업이 782.1%, 통신업이 2662.7%, 사업서비스업은 43277.1%로 크게 성장하였다. 비생산형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88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3960.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입서비스업이 419% 성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생산형 산업의 성장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동 신도시의 인구 1,000명당 고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생산형 산업보다는 생산형 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중동 신도시 인구 1,000명 당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산업분류		1995	2000	2005	2010	변화율
생 산 형	제조업	0.5	1.8	4.3	2.6	373.7%
	건설업	1.8	2.9	10.5	15.4	782.1%
	운수업	2.3	6.3	8.1	7.1	212.6%
	통신업	0.1	2.0	4.9	3.1	2662.7%
	금융 및 보험업	1.3	4.5	9.7	20.9	1467.8%
	사업서비스업	0.1	2.7	25.5	44.9	43277.1%
비 생 산 형	도매 및 소매업	6.9	15.4	30.5	32.6	372.1%
	숙박 및 음식점업	4.1	19.4	33.1	40.6	880.5%
	부동산 및 임대업	10.6	11.7	14.9	13.5	28.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5	11.1	17.2	23.7	266.4%
	교육 서비스업	12.6	21.2	32.8	36.4	189.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8	5.2	21.0	32.0	3960.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	2.2	7.6	6.3	322.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0	5.8	9.9	15.8	419.0%

## V.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 1.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1995년 건설초기와 2010년 현재 1기 신도시의 생산형 산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5개 신도시별로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LQ)를 분석했다. 먼저 생산형 산업을 대분류로 입지계수를 분석한 다음 세부적인 특화 산업 도출을 위해 소분류로 다시 한 번 입지계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비교를 통해 5개 신도시별로 기반산업들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았다.

#### 1) 분당 신도시

##### (1) 1995년 입지계수

1기 신도시 건설 완료 직후 1995년 분당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20.48), 통신업(1.23), 금융 및 보험업(1.11), 사업서비스업(1.01)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12> 1995년 분당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제조업	0.03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48
건설업	0.17
운수업	0.20
통신업	1.23
금융 및 보험업	1.11
사업서비스업	1.01

이들 산업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업(7.14)과 증기 및 온수 공급업(376.70)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기업은 분당전기공사,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은 1993년 분당구로 이전된 한국난방공사 본사와 분당지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 된다. 우편업 또한 각 신도시마다 우편집중국을 신도시 건설 초기에 설치하여 입지계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및 보험 업종에서는 통화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업,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에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들이 분당신도시 건설 초기에 기반산업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13> 1995년 분당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대분류	LQ	소분류	LQ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48	전기업	7.14
		증기 및 온수 공급업	376.70
J.통신업	1.23	우편 및 소포 송달업	2.73
K.금융 및 보험업	1.11	통화 금융기관	1.14
		보험 및 연금업	1.28
		금융관련 서비스업	1.68
M.사업서비스	1.0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1.12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7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기반산업으로 판명된 업종들의 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실시했다.

먼저 금융 및 보험업을 살펴본 결과 통화 금융기관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모두 서울 수준 그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화 금융기관과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 금융업종이 밀집되어

<그림 2> 1995년 분당과 서울의 통화금융기관 비교

**통화 금융기관**

지역	비율
종로구	2.89
중랑구	2.40
송파구	1.41
노원구	1.24
은평구	1.18
양정동구	1.18
분양	1.14
강천구	1.11
강남구	1.11
강동구	1.11
강북구	1.10
서대문구	1.08
동진구	1.05
성북구	0.98
관악구	0.96
강서구	0.94
마포구	0.88
서초구	0.87
중랑구	0.84
홍산구	0.82
광진구	0.79
동대문구	0.76
구로구	0.69
성동구	0.67
도봉구	0.66
금천구	0.59

**보험 및 연금업**

회사명	비율 (%)
대우증권	2.19
강북구	1.83
종로구	1.79
마포구	1.51
동대문구	1.48
분당	1.28
영등포구	1.28
강동구	1.27
동작구	1.22
서대문구	1.10
관악구	0.93
성북구	0.90
노원구	0.89
서초구	0.83
종로구	0.79
강남구	0.77
용산구	0.76
광진구	0.73
은평구	0.70
성동구	0.48
양천구	0.40
강서구	0.38
중랑구	0.35
구로구	0.35
도봉구	0.32
금천구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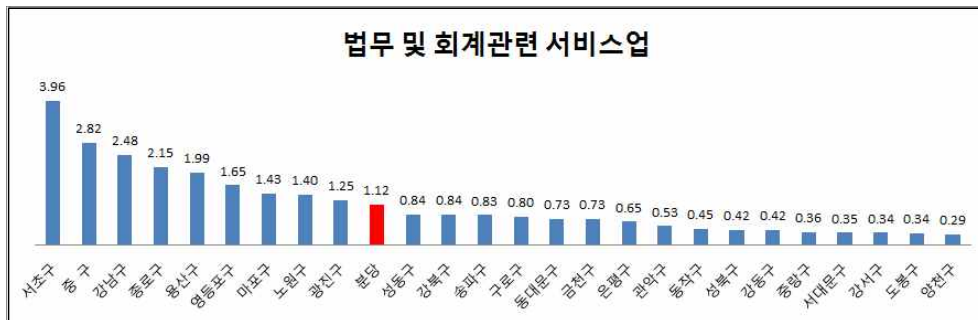
### 금융관련 서비스업

구	비율 (%)
영등포구	15.52
중구	4.48
송파구	2.93
강남구	2.75
분당	1.68
서초구	1.67
종로구	1.45
강북구	1.02
양천구	0.98
노원구	0.90
마포구	0.66
강동구	0.58
관악구	0.50
은평구	0.46
서대문구	0.46
동치구	0.43
동대문구	0.36
도봉구	0.27
광진구	0.26
강서구	0.23
용산구	0.22
금천구	0.20
동양구	0.17
성북구	0.17
성동구	0.15
구로구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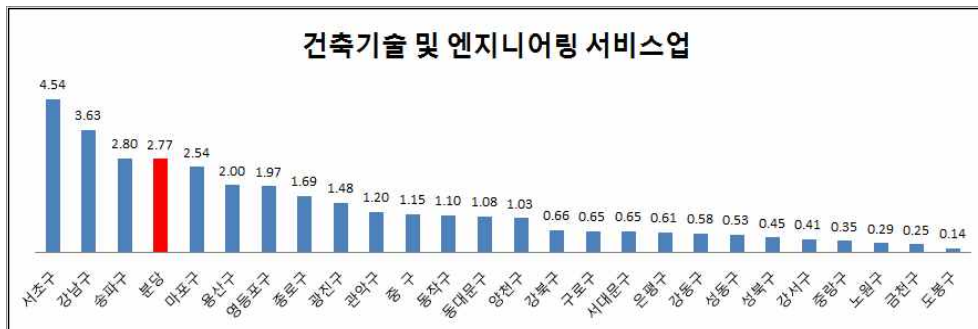


사업서비스업을 서울시와 비교해본 결과 범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중간 수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는 상위 수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중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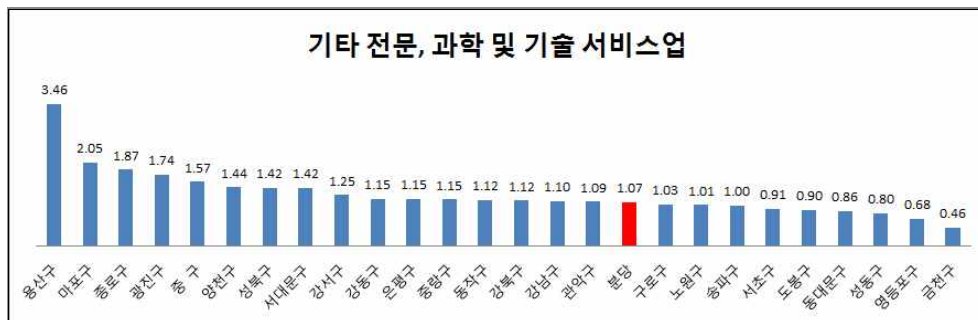
<그림 5> 1995년 분당과 서울의 범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비교



<그림 6> 1995년 분당과 서울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교



<그림 7> 1995년 분당과 서울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교



결론적으로 1995년 분당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살펴본 결과 특별히 눈에 띄는 기반산업은 없었지만 한국난방공사, 전기공사, 우편집중국 등 분당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 중심의 산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아울러 은행 및 증권사와 같은 금융 및 보험업이 비교적 초기에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서비스 중에는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같은 2차산업은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 (2) 2010년 입지계수

2010년을 기준으로 분당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입지계수로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68) 등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분당 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높게 나온 산업들이며 도시 전반적인 고용 증가로 인해 입지계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2010년 분당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2
건설업	1.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8.30), 전기통신업(5.8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5.39),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22.62) 등 IT 관련 산업들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IT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제조업의 경우 신도시 특성상 제조업의 특화가 어려운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1.11),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1.98) 등 IT관련 제조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연금 및 공제업(1.11), 금융지원 서비스업(1.87)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2.79)의 입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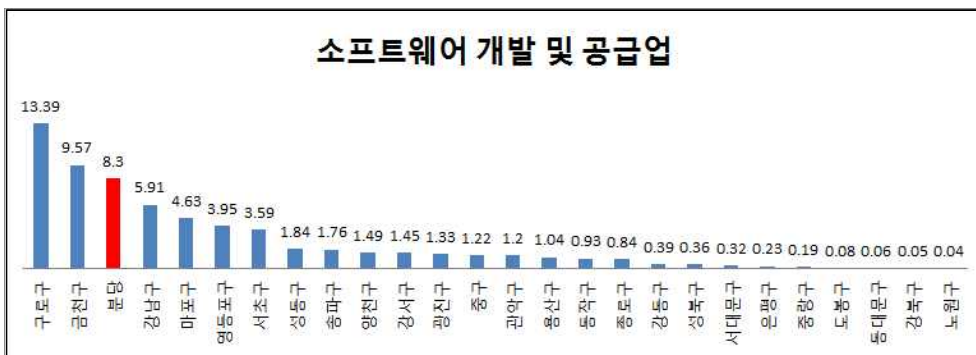
이처럼 분당신도시에 고용중심의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분당신도시 내에서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IT 산업은 분당의 특화 산업으로 분당신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5> 2010년 분당신도시의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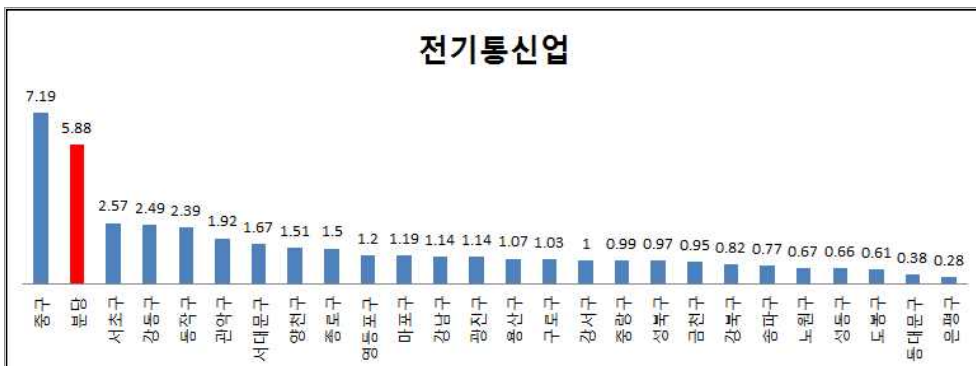
대분류	소분류	LQ
C.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11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98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2.21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6.66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48
F.건설업	토목 건설업	1.99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6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21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30
	전기통신업	5.8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39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23.62
K.금융 및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1.11
	금융지원 서비스업	1.8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1.6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2.79
	수의업	1.42
	전문디자인업	1.84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7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72

그러면 분당신도시의 IT 산업이 어느 수준까지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경우 서울의 첨단산업에 경제기반을 둔 구로구(13.39)와 금천구(9.57) 다음으로 분당신도시가 높았다. 전기통신업의 경우 중구(7.19) 다음으로 높았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경우 금천구(9.16)와 중구(5.56) 다음으로 분당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의 경우 서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분당신도시의 IT관련 산업은 서울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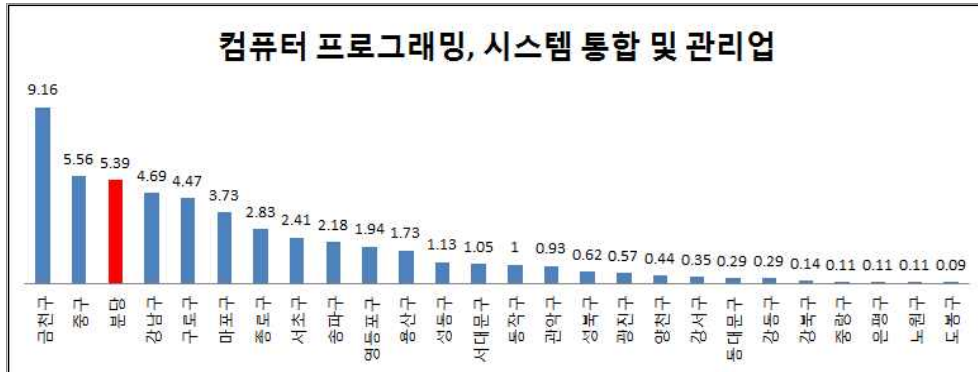
<그림 8>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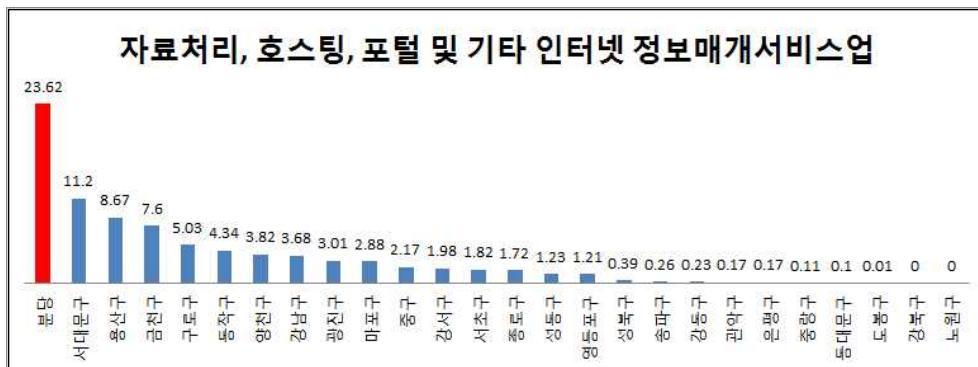
<그림 9>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전기통신업 비교



<그림 10>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비교



<그림 11> 2010년 분당과 서울의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비교



## 2) 일산 신도시

### (1) 1995년 입지계수

1995년 일산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58)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산업은 비기반산업으로 신도시 건설 초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1995년 일산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제조업	0.0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58
건설업	0.26
운수업	0.32
통신업	0.15
금융 및 보험업	0.92
사업서비스업	0.80

일산 신도시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업(6.30)과 증기 및 온수 공급업(17.77)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기업과 온수 공급업은 분당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영향으로 풀이 된다.

금융 및 보험 업종에서는 통화 금융기관(1.74),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1.66)의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분당과 마찬가지로 일산 신도시에서도 은행, 보험회사 등이 일산신도시 건설 초기에 기반산업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1.28), 전문 디자인업(2.5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65),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1.41),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1.90) 등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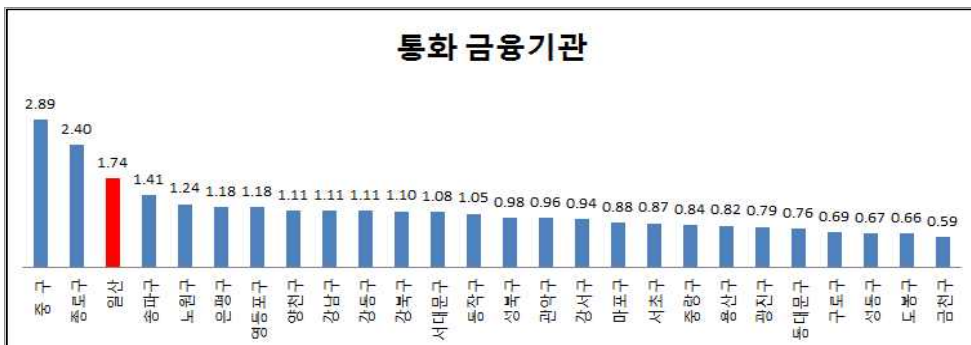
<표 17> 1995년 일산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산업분류(소)		LQ
D.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1.62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2.82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업	6.30
	증기 및 온수 공급업	17.77
K.금융 및 보험업	통화 금융기관	1.74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66
M.사업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28
	전문 디자인업	2.5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5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1.41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90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기반산업들의 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실시했다.

먼저 금융 및 보험업을 살펴본 결과 통화 금융기관업의 경우 서울 중구와 종로구 다음으로 일산의 입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및 연금업은 종로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 다음으로 일산이 높았다. 두 업종 모두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12> 1995년 일산과 서울의 통화 금융기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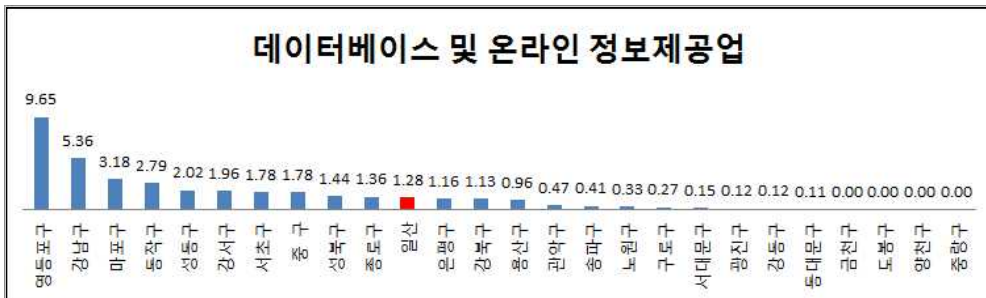


<그림 13> 1995년 일산과 서울의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비교



사업서비스업을 서울시와 비교해본 결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서울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디자인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서울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1995년 일산과 서울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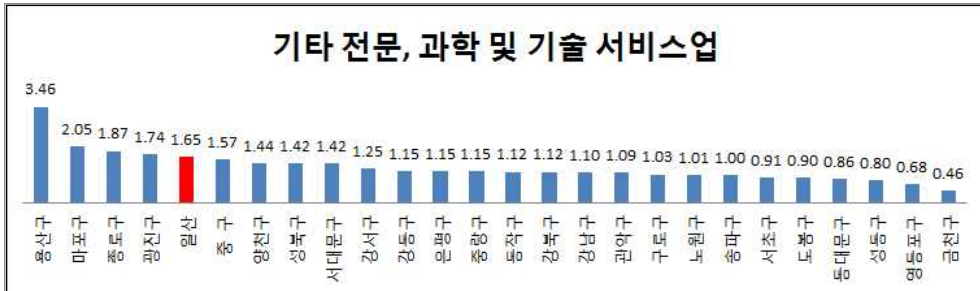


<그림 15> 1995년 일산과 서울의 전문 디자인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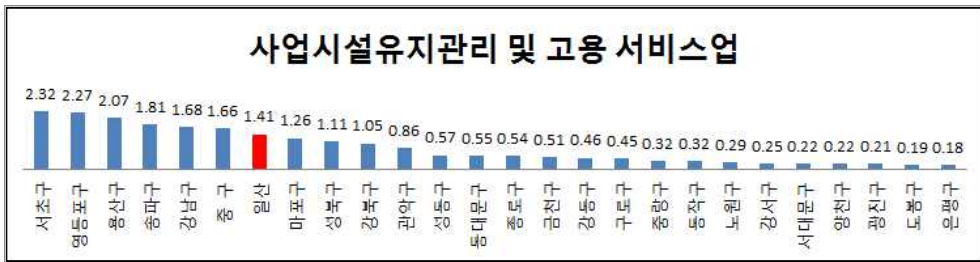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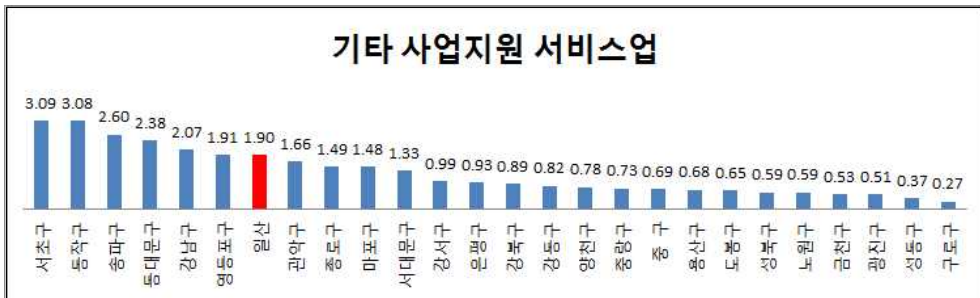
<그림 16> 1995년 일산과 서울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교



<그림 17> 1995년 일산과 서울의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비교



<그림 18> 1995년 일산과 서울의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교



결론적으로 1995년 일산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살펴본 결과 특별히 눈에 띄는 기반산업은 없었지만 분당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일산 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 중심의 산업들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은행 및 증권사와 같은 금융 및 보험업이 비교적 초기에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양한 사업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은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 (2) 2010년 입지계수

2010년 일산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29), 금융 및 보험업(1.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5)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18> 2010년 일산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9
금융 및 보험업	1.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3.19),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3.91) 등 미디어 관련 산업들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산신도시의 미디어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제조업의 경우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04),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1.55), 악기제조업 등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은행,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지원 관련 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는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수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산신도시도 분당과 마찬가지로 고용중심의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결과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일산신도시 내에서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미디어 산업은 일산의 특화 산업으로 일산신도시의 경제기반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9> 2010년 일산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산업분류(소)		LQ
C.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1.04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55
	악기제조업	2.45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03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업	1.30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18
E.하수폐기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91
F.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32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1.33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3.19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3.91
	우편업	1.69
	전기통신업	3.06
	기타 정보 서비스업	1.92
K.금융 및 보험업	은행 및 저축기관	1.02
	기타 금융업	1.92
	보험업	1.79
	연금 및 공제업	1.21
	금융지원 서비스업	1.35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6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1.56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39
	법무관련 서비스업	1.6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05
	광고업	1.14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sup>8)</sup>	2.80
	수의업	3.0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57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19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1.1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1.37
	경비, 경호 및 탐정업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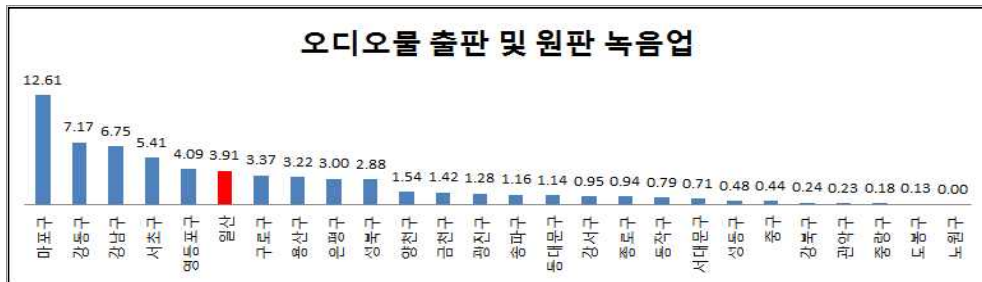
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업

그러면 일산신도시의 미디어 산업 특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의 경우 서울의 마포구(5.61), 강남구(4.47), 영등포구(4.48), 구로구(3.52) 다음으로 일산 신도시가 높았다.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은 마포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기통신업 또한 중구 다음으로 일산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9>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비교



<그림 20>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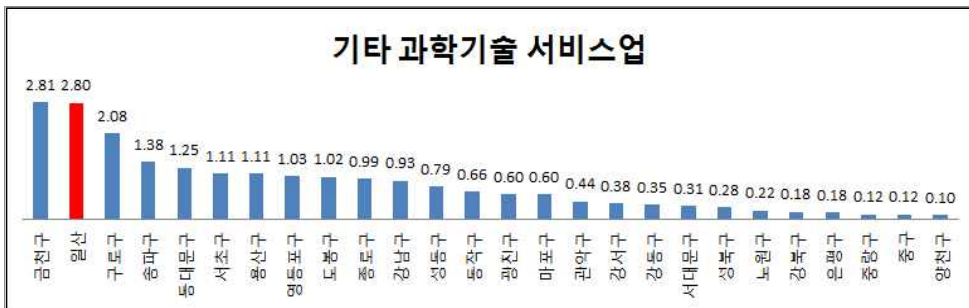


<그림 21>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전기통신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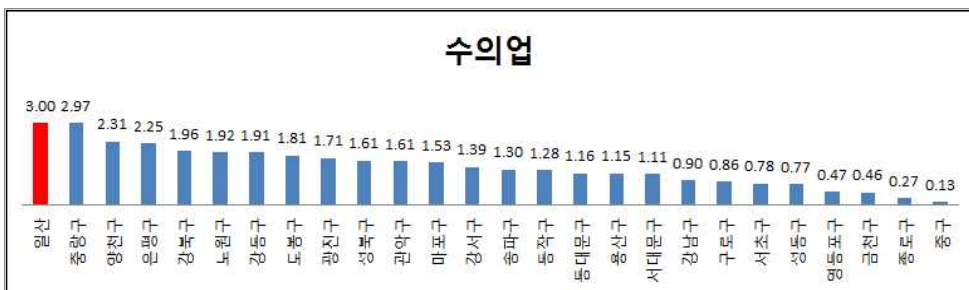


아울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수의업 또한 서울보다 높은 임지계수를 나타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산 신도시의 미디어 관련 산업은 서울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비교



<그림 23> 2010년 일산과 서울시의 수의업 비교



### 3) 평촌 신도시

#### (1) 1995년 입지계수

1995년 평촌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57), 통신업(1.95), 금융 및 보험업(1.42), 사업서비스업(1.91)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0> 1995년 평촌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제조업	0.0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57
건설업	0.31
운수업	0.50
통신업	1.95
금융 및 보험업	1.42
사업서비스업	1.91

이들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업(5.78)과 증기 및 온수 공급업(26.77)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기업과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은 분당 및 일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기반산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업 중 우편 및 소포송달업과 전기 통신업 또한 우편집중국과 KT의 지사가 입지계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및 보험 업종에서는 통화 금융기관(2.17), 보험 및 연금업(1.25), 금융관련 서비스업(1.42)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에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들이 분당, 일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평촌 신도시에도 건설 초기에 기반산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7)과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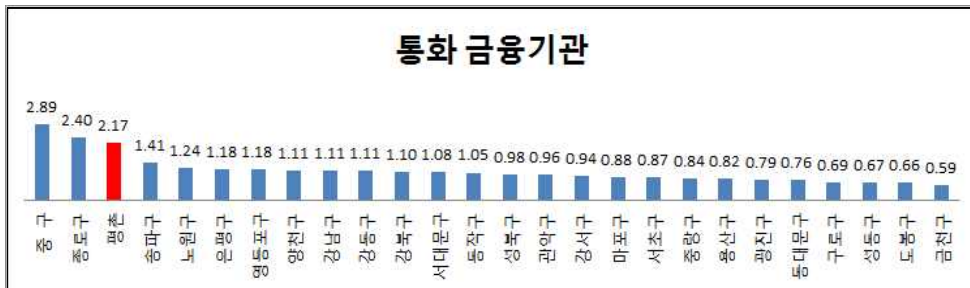
<표 21> 1995년 평촌 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산업분류		LQ
D.제조업	출판업	1.85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업	5.78
	증기 및 온수 공급업	26.77
I.운수업	철도 운송업	1.29
J.통신업	우편 및 소포 송달업	1.98
	전기 통신업	1.93
K.금융 및 보험업	통화 금융기관	2.17
	보험 및 연금업	1.25
	금융관련 서비스업	1.42
M.사업서비스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07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68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1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기반산업 업종들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실시했다.

먼저 금융 및 보험업은 중구와 종로구 다음으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및 연금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은 서울 수준 그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관련 고용이 평촌 신도시 초기부터 특화산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통화 금융기관 비교



<그림 25>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보험 및 연금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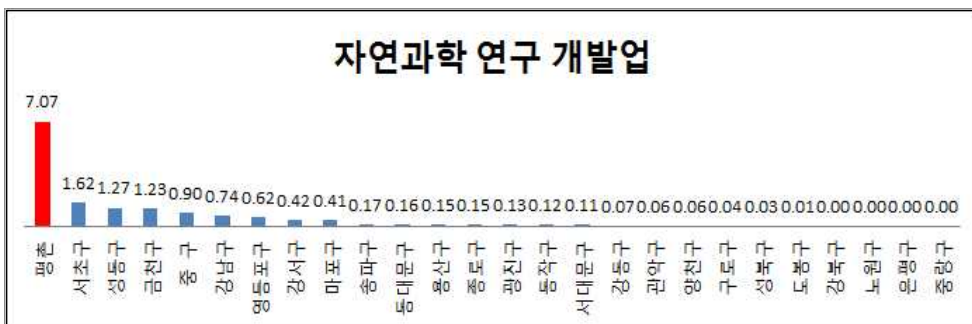


<그림 26>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금융관련 서비스업 비교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자연과학 연구개발의 특화가 나타났다. 서울의 서초구 성동구, 금천구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또한 서울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는 서울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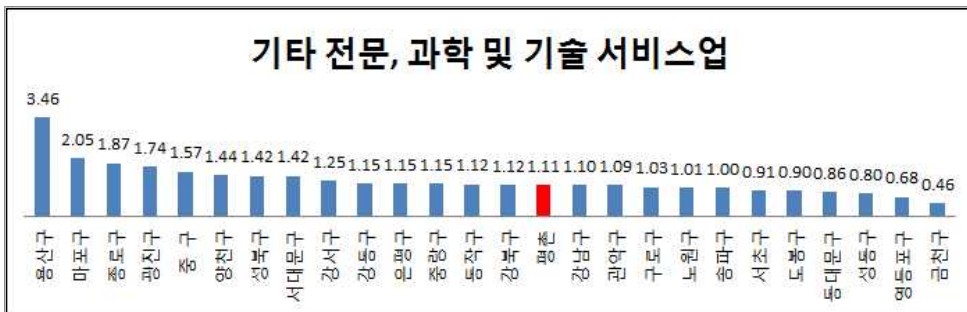




<그림 28>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교



<그림 29> 1995년 평촌과 서울시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교



결론적으로 1995년 평촌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살펴본 결과 사업서비스 중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과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특화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촌신도시 건설 초기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난방공사, 전기공사, 우편집중국 등 분당 및 일산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전된 공공기관 중심의 산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은행 및 증권사와 같은 금융 및 보험업이 비교적 초기에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에서는 출판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 (2) 2010년 입지계수

2010년을 기준으로 평촌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입지계수로 분석한 결과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1.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9), 금융 및 보험업(1.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4)등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2> 2010년 평촌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9
금융 및 보험업	1.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64

가장 높게 나타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10.0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5.79), 등 연구개발 관련 산업들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연구개발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제조업의 경우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7.34)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은행, 금융업,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는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촌 신도시에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결과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촌 신도시 내에서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연구개발 산업은 평촌의 특화 산업으로 평촌신도시의 경제기반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3> 2010년 평촌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산업분류(소)		LQ
C.제조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0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1.03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1.12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7.34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업	1.36
E.하수폐기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b>폐기물 처리업</b>	<b>4.69</b>
F.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10
H.운수업	도로 화물 운송업	1.18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34
	<b>우편업</b>	<b>4.25</b>
	전기통신업	1.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11
K.금융 및 보험업	은행 및 저축기관	1.02
	기타 금융업	1.54
	보험업	2.65
	금융지원 서비스업	1.04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b>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b>	<b>10.03</b>
	법무관련 서비스업	1.7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1.29
	<b>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b>	<b>5.79</b>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4
	수의업	2.37
	전문디자인업	1.09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09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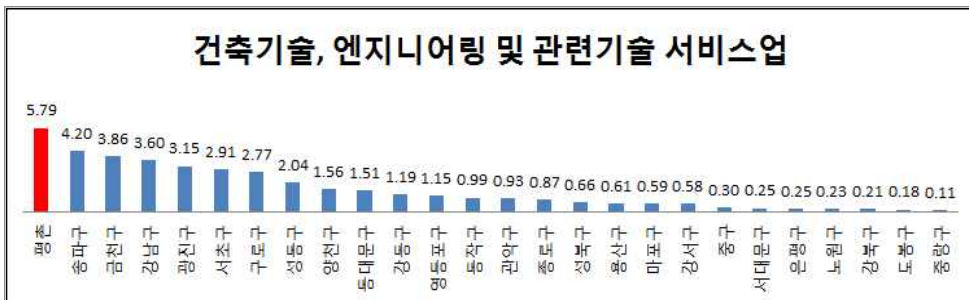
평촌신도시의 연구개발 산업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의 경우 서울시 모든 區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동대문구, 서초구 영등포구가 그 뒤를 따른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또한 서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그 뒤로 서울의 송파구, 금천구, 강남구 순으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

으로 보았을 때 평촌신도시의 연구개발 관련 산업은 서울보다 더욱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0> 2010년 평촌과 서울시의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비교



<그림 31> 2010년 평촌과 서울시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비교



#### 4) 산본 신도시

##### (1) 1995년 입지계수

1995년 산본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57)과 통신업(4.81)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4> 1995년 산본신도시 생산형 산업 LQ

산업분류(대)	LQ
제조업	0.0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57
건설업	0.44
운수업	0.87
통신업	4.81
금융 및 보험업	0.79
사업서비스업	0.45

이들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는 수도사업(7.85)이, 통신업에서는 우편 및 소포 송달업(4.22)과 전기통신업(5.29)의 입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앞에 분석된 분당, 일산, 평촌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산본 신도시로 이전된 공기업과 우편집중국, KT 지사 등이 신도시 건설 초기에 입지하여 입지계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 및 보험 업종에서는 통화 금융기관(1.63) 만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으며, 사업서비스 부문에서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6)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신도시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부분의 산업들이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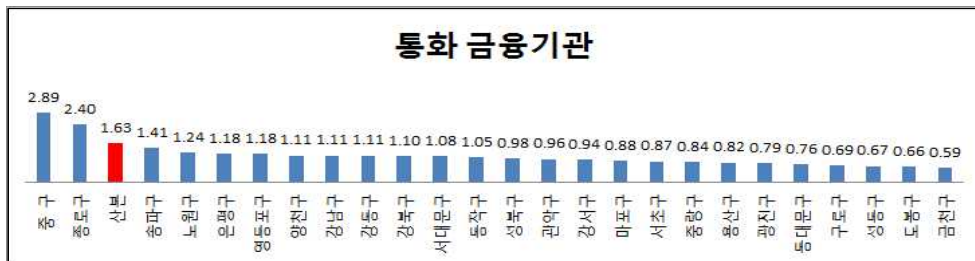
<표 25> 1995년 산본 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산업분류(소)		LQ
D.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14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수도사업	7.85
I.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	1.30
J.통신업	우편 및 소포 송달업	4.22
	전기 통신업	5.29
K.금융 및 보험업	통화 금융기관	1.63
M.사업서비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6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기반산업들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실시했다.

먼저 금융 및 보험업을 살펴본 결과 통화 금융기관업의 경우 서울 중구와 종로구 다음으로 높은 입지계수는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 1995년 산본과 서울시의 통화금융기관 비교



사업서비스업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서울 중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1995년 산본과 서울시의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교



결론적으로 1995년 산본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살펴본 결과 신도시 건설 초기 입지한 공공기관 관련 기반산업 이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기반산업은 없었다.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관련 기반산업이 초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기반산업보다는 비기반산업이 많이 분석되었다. 분당 및 일산 신도시와는 다르게 산본 신도시 건설 목적이 주택공급에 초점을 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2010년 입지계수

2010년을 기준으로 산본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입지계수로 분석한 결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표 26> 2010년 산본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3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2.13), 경비, 경호 및 탐정업(8.26),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12.19) 등 사업지원서비스 산업들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산본 신도시의 사업지원서비스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제조업의 경우 신도시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연금 및 보험업관련 업종들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는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수의업이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이처럼 산본 신도시에 고용중심의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결과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내고 있었지만, 분당, 일산, 평촌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비기반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산본 신도시의 특화 산업으로 산본 신도시의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2010년 산본 생산형 산업 LQ

대분류	소분류	LQ
C.제조업	기록매체 복제업	1.26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80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수도사업	3.23
E.하수폐기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b>환경 정화 및 복원업</b>	<b>33.11</b>
F.건설업	건물 건설업	1.30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1.0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1.50
H.운수업	도로 화물 운송업	1.19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51
	<b>우편업</b>	<b>2.71</b>
K.금융 및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2.10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03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55
	수의업	1.31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b>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b>	<b>2.13</b>
	<b>경비, 경호 및 탐정업</b>	<b>8.26</b>
	<b>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sup>9)</sup></b>	<b>12.19</b>

산본 신도시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의 경우 구로구,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강동구, 영등포구, 금천구 다음으로 산본 신도시가 높았다. 경비, 경호 및 탐정업의 경우 서울시 전체 보다 높았으며,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한 서울 어느 區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나

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생사 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등



타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산본 신도시의 사업서비스 관련 산업은 서울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 2010년 산본과 서울시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비교



<그림 35> 2010년 산본과 서울시의 경비, 경호 및 탐정업 비교



<그림 36> 2010년 산본과 서울시의 기타사업지원 서비스업 비교



## 5) 중동신도시

### (1) 1995년 입지계수

1995년 중동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대분류의 산업들이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8> 1995년 중동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제조업	0.04
건설업	0.47
운수업	0.82
통신업	0.35
금융 및 보험업	0.49
사업서비스업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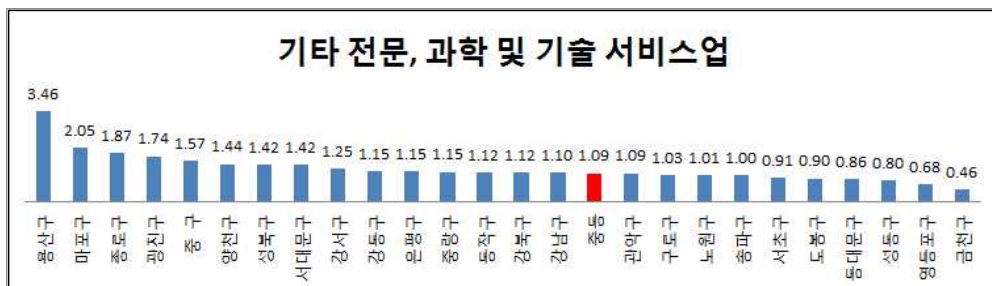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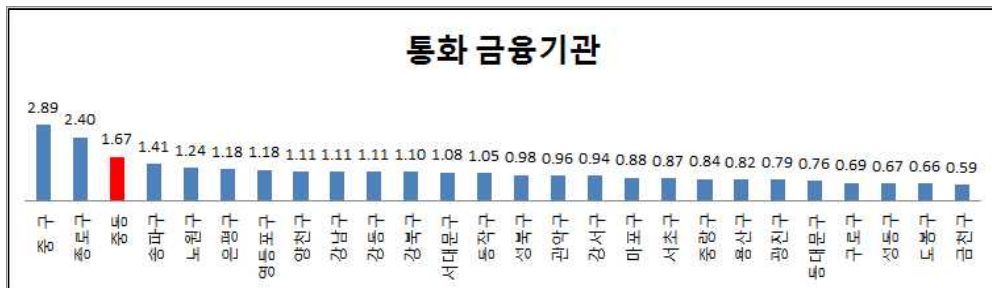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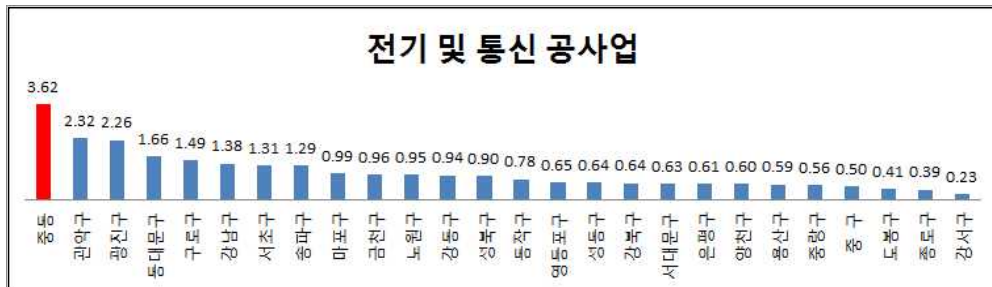
이들 산업들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소분류로 세분화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 중 전기 및 통신 공사업(3.62)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운수업 중에는 도로화물 운송업(1.04)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1.43)이 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통화 금융기관(1.67), 사업서비스업에서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9)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9> 1995년 중동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 LQ(소분류)

산업분류(소)		LQ
F.건설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3.62
I.운수업	도로화물 운송업	1.04
I.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43
K.금융 및 보험업	통화 금융기관	1.67
M.사업서비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9

먼저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의 경우 중동 신도시가 서울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살펴본 결과 통화 금융기관업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서울 수준으로 나타났다.



1995년 중동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살펴본 결과 산본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이외에는 기반산업은 찾을 수 없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산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주택공급에 초점을 둔 신도시로 건설초기 고용자족성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2010년 입지계수

2010년을 기준으로 중동 신도시의 생산형 경제기반을 입지계수로 분석한 결과 금융 및 보험업(1.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2.49)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표 30> 2010년 중동 신도시 생산형 산업 LQ(대분류)

산업분류(대)	LQ
금융 및 보험업	1.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9

중동 신도시의 산업을 세분화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보험업(3.24),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4.87),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10.96) 등 산본가 마찬가지로 사업지원 관련 산업들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산본가 마찬가지로 중동신도시의 사업지원 산업이 전국에 비해 특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 제조업의 경우 토목건설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금융지원,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기반산업으로 타나났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는 수의업과 사진 촬영 및 처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중동신도시에 고용중심의 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 분석 결과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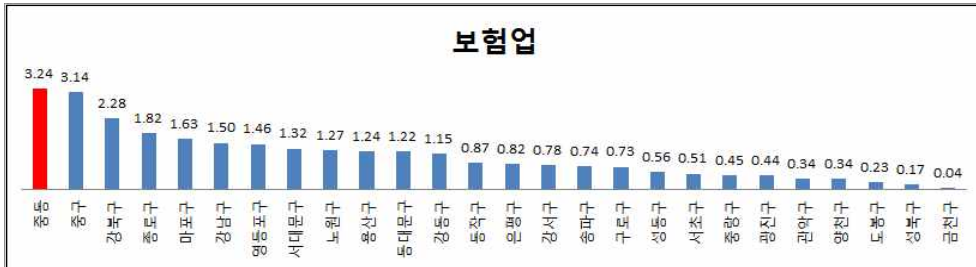
중동신도시 내에서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산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분당, 일산, 평촌과 비교했을 때 고용기반 자족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업서비스 산업은 중동의 특화 산업으로 중동신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 2010년 중동신도시의 생산형 산업 LQ(소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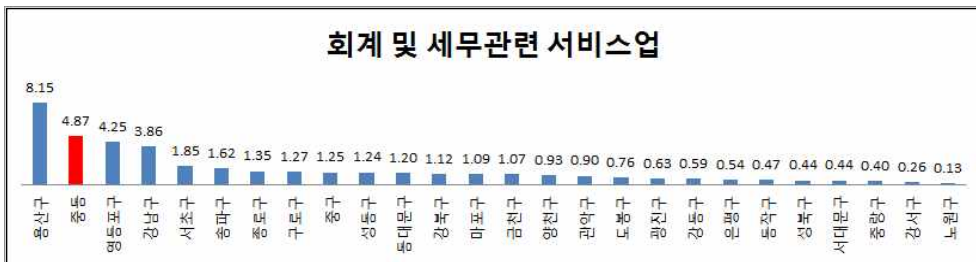
산업분류(소)		LQ
F.건설업	토목 건설업	1.66
H.운수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1.12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1.33
	우편업	2.85
K.금융 및 보험업	<b>보험업</b>	<b>3.24</b>
	금융지원 서비스업	1.06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1.5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b>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b>	<b>4.87</b>
	수의업	2.06
	사진 촬영 및 처리업	1.47
N.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1.97
	<b>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b>	<b>10.96</b>

중동신도시의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와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보험의 경우 서울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용산구 다음으로 중동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서울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는 서초구(3.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동신도시의 사업서비스 관련 산업은 서울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0> 2010년 중동과 서울시의 보험업 비교



<그림 41> 2010년 중동과 서울시의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비교



<그림 42> 2010년 중동과 서울시의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교



## 2. 비생산형 산업의 경제기반 분석

### 1) 1995년 1기 신도시 건설초기 비생산형 경제기반 분석

1995년 1기 신도시들의 비생산형 경제기반을 알아보기 위해 5개 신도시별 비생산형 산업을 대분류로 구분하여 입지계수를 분석했다. 또한 그 결과를 서울시와 비교해 보았다. 비생산형 산업들의 입지계수를 알아봄으로써 1기 신도시 건설초기 주민들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알아보기로 한다.

<표 32> 1995년 1기 신도시 및 서울의 비생산형 산업 L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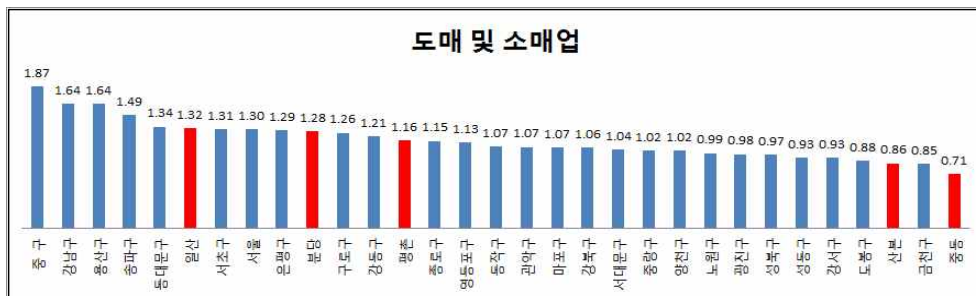
산업분류(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서울
도매 및 소매업	1.28	1.32	1.16	0.86	0.71	1.30
숙박 및 음식점업	1.04	1.53	1.05	1.25	0.84	0.88
부동산 및 임대업	7.92	7.36	6.09	6.77	9.15	1.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73	0.50	2.02	2.60	3.00	0.68
교육 서비스업	2.01	2.55	2.79	2.65	4.24	0.7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5	1.13	0.67	1.29	0.58	1.0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6	1.75	0.65	1.61	1.64	1.1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0.98	1.33	0.83	1.24	1.07	0.82

분석결과 신도시 주민들이 재화 구매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신도시에서 기반산업으로 나타났고 산본 중동은 비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의 경우 건설 초기부터 서울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기반산업으로 나타났고 그 수준 또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5개 신도시 모두 서울 보다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주택이 우선 개발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의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서비스업 또한 5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시청이 신도시로 이전된 평촌, 산본, 중동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의료시설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분당, 일산, 산본 신도시가 서울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락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은 분당, 일산, 산본, 중동 신도시에서 기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43〉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도매 및 소매업 비교



### 숙박 및 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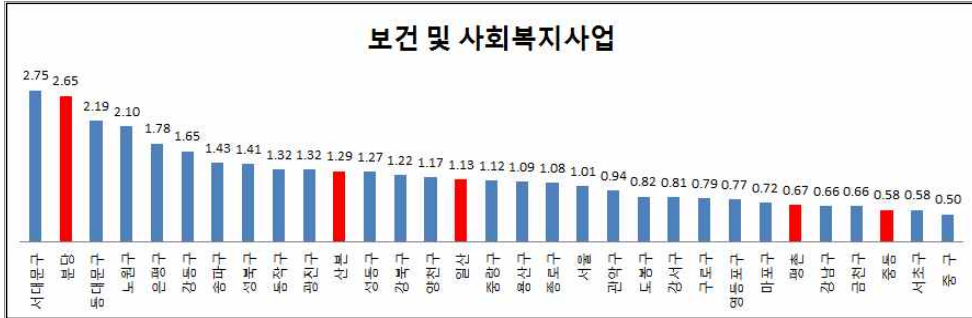
지역	종업원 수 (백만 명)
서울	1.53
강원도	1.51
충청북도	1.47
경기도	1.34
충청남도	1.30
경북도	1.28
충청북도	1.27
경기도	1.25
충청남도	1.21
경북도	1.20
충청북도	1.08
경기도	1.06
충청남도	1.05
경북도	1.04
충청북도	1.04
경기도	1.03
충청남도	1.03
경북도	0.99
충청북도	0.98
경기도	0.93
충청남도	0.88
경북도	0.84
충청북도	0.83
경기도	0.79
충청남도	0.74
경북도	0.74
충청북도	0.70
경기도	0.70
충청남도	0.68
경북도	0.65
충청북도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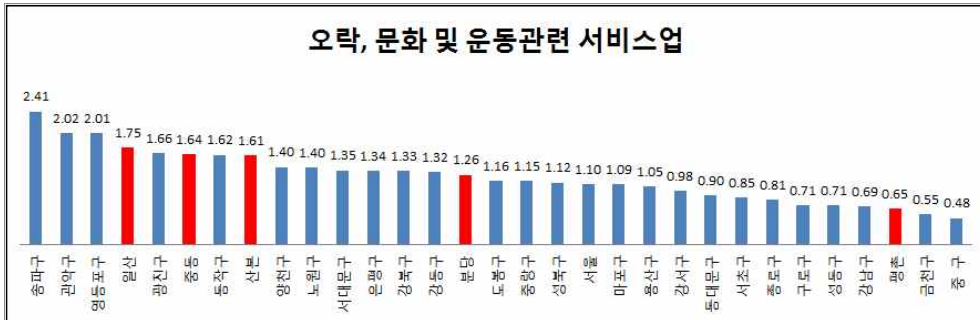
〈그림 45〉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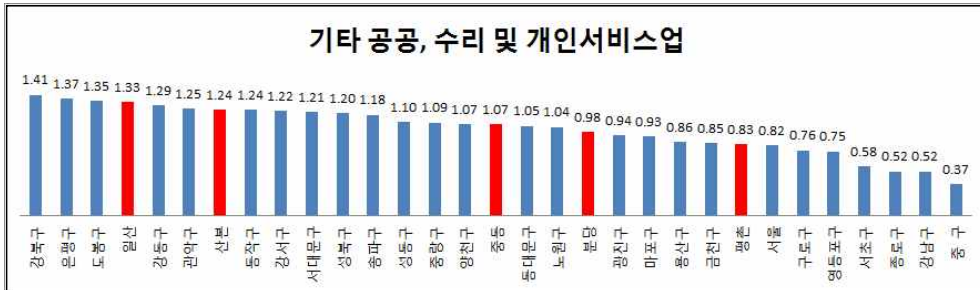
<그림 47>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비교



<그림 48>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비교



<그림 49> 1995년 1기 신도시와 서울시의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비교



## 2) 2010년 1기 신도시의 비생산형 경제기반 분석

2010년 1기 신도시의 비생산형 경제기반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주민들이 재화 구매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당초 분당은 1995년 보다 떨어진 0.97로 나타났고, 일산과 평촌은 기반산업으로, 산본과 중동은 여전히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일산과 평촌 또한 기반산업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1995년도에 비해 그 수치가 약간 낮아졌다.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모두 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고 산본에서만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간의 증감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5개 신도시 모두 여전히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지만 1995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 또한 5개 신도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그 역시 1995년 보다는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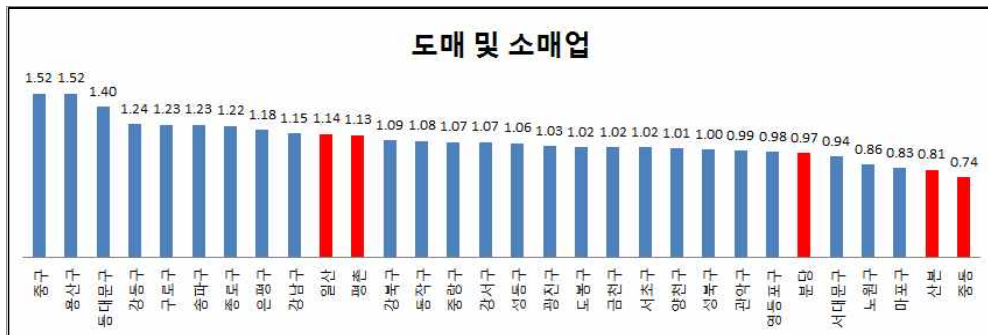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1995년과 마찬가지로 시청이 신도시로 이전된 평촌, 산본, 중동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의료시설이 포함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5개 신도시 모두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모두 5개 신도시에서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33> 2010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비생산형 산업 L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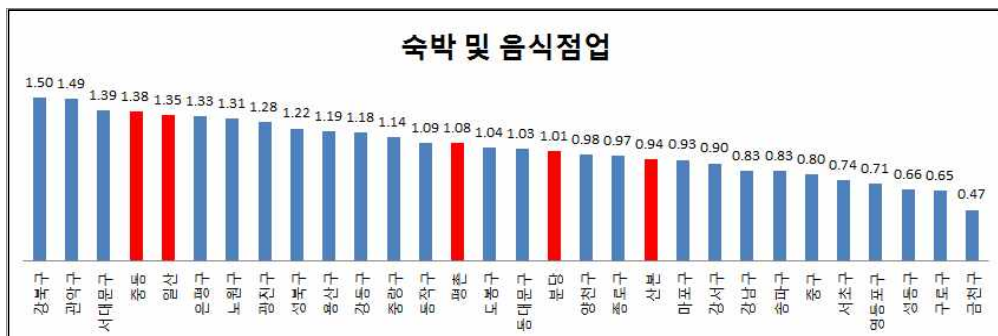
산업분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도매 및 소매업	0.97	1.14	1.13	0.81	0.74
숙박 및 음식점업	1.01	1.35	1.08	0.94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8	2.41	2.79	1.79	1.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38	0.81	1.28	1.26	2.13
교육 서비스업	1.17	1.48	1.83	2.17	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2	1.54	1.05	1.65	1.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94	1.41	0.99	1.39	1.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1	1.24	0.80	1.42	1.12

서울시와의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서울시 區단위로 비교한 결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일산과 평촌이 서울 강남구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에 분당과 산본 중동은 서울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중동과 일산이 강북구, 관악구, 서대문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분당, 평촌, 산본은 서울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0>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도매 및 소매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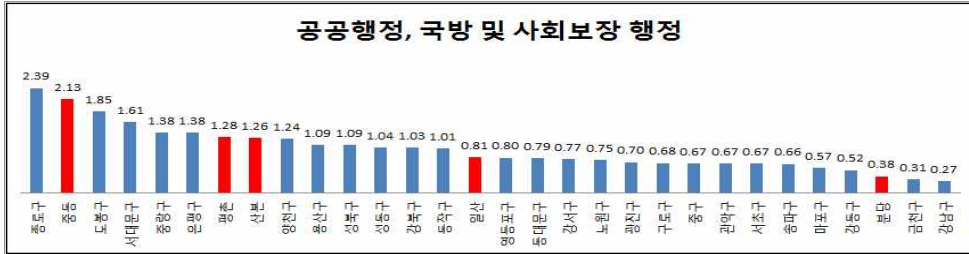


<그림 51>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숙박 및 음식점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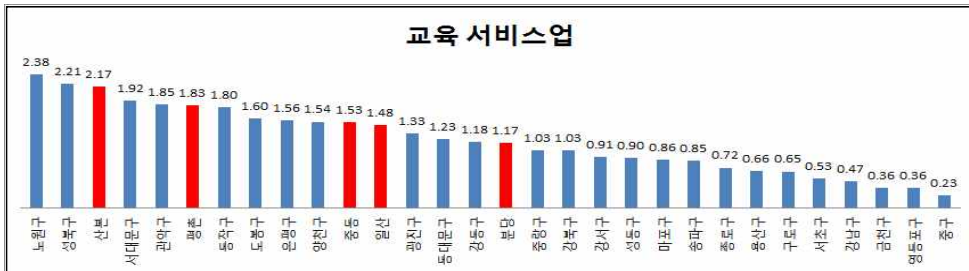


공공해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199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동이 종로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촌 및 산본은 서울 은평구와 양천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산은 서울 동작구와 영등포구 수준으로, 분당은 서울 평균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본이 노원구와 성북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동, 분당, 일산이 서울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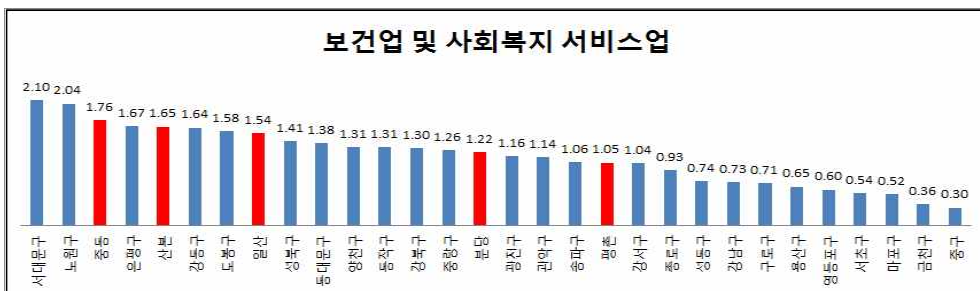


<그림 53>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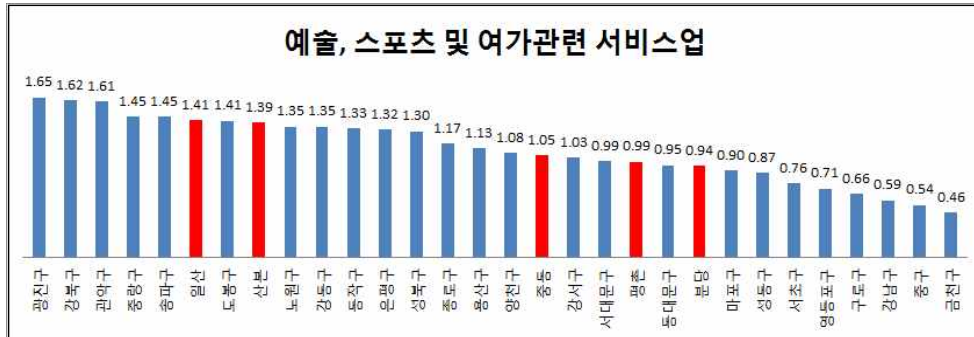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중동이 서대문구와 노원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산은 서울 도봉구와 성북구 수준, 분당은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수준, 평촌은 송파구와 강서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일산과 산본이 서울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중동, 평촌, 분당이 서울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입 서비스업은 산본이 서울 은평구, 중랑구 수준으로 일산이 노원구, 동작구, 중동이 강서구, 광진구, 평촌과 분당은 서대문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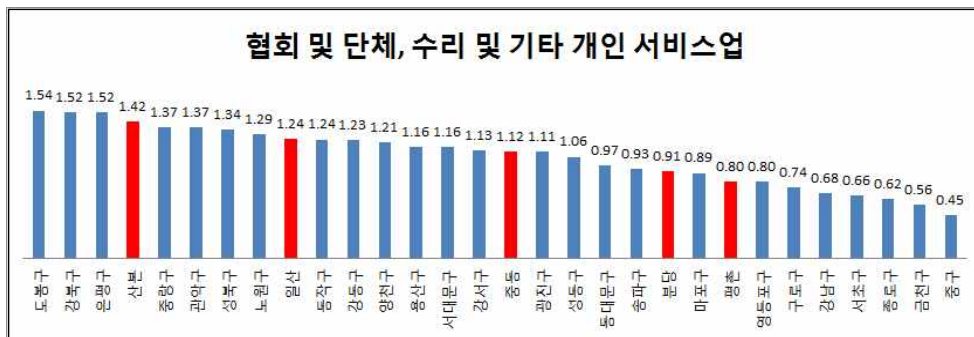
<그림 54>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교



<그림 55>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비교



<그림 56> 2010년 1기 신도시와 서울의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비교



이처럼 5개 신도시 모두 전체적으로 비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가 줄어들거나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신도시의 산업구조가 비생산형에서 생산형으로 변화되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 VI.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별 변화-활당 모형 분석

### 1. 분당신도시

분당 신도시의 건설초기인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생산형 산업들의 변화-활당모형 분석 결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지역활당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서비스의 경우 전국경제성장효과 및 산업구조효과에 비해 지역활당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분당 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활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활당 효과
제조업	2205	39	-43	220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28	309	174	-154
건설업	7554	57	-18	7515
운수업	1967	50	11	1906
통신업	1849	36	27	1787
금융 및 보험업	1626	268	-264	1623
사업서비스업	22443	163	1252	21027

분당의 특화산업인 IT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화-활당모형 분석결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전기통신업 모두 지역활당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분당 신도시 생산형 세부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순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502	6416	86	86	633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 템 통합 및 관리업	2127	2122	4	4	2119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 개서비스업	2852	2847	5	5	2842
전기통신업	1675	1675	0	0	1675

## 2. 일산 신도시

일산신도시의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지역할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과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전국경제성장효과 및 산업구조효과에 비교해 지역할당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일산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제조업	4176	159	-174	419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	115	65	-200
건설업	4649	145	-45	4549
운수업	1558	131	28	1399
통신업	1393	7	6	1380
금융 및 보험업	4775	371	-367	4770
사업서비스업	9695	214	1643	7837



일산 신도시의 특화산업인 미디어 관련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전국경제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는 마이너스(-)를 나타낸 반면에 지역할당효과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기통신업 또한 지역할당효과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7> 일산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순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미디어 관련	406	428	-22	-53	481
전기통신업	903	903	0	-1	904

### 3. 평촌 신도시

평촌 신도시의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 지역할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전국경제성장효과 및 산업구조효과에 비교해 지역할당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8> 평촌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명	총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제조업	1128	72	-79	113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2	64	36	-143
건설업	1750	96	-30	1684
운수업	970	113	25	832
통신업	629	53	39	537
금융 및 보험업	2642	318	-314	2638
사업서비스업	6306	287	2202	3817

평촌 신도시의 특화산업인 연구개발업 및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전국경제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에 비해 지역할당효과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39> 평촌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순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330	330	1	0	32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사어 비스업	2304	2102	202	16	2086

#### 4. 산본 신도시

산본 신도시의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 지역할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전국경제성장효과 및 산업구조효과에 비교해 지역할당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0> 산본 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제조업	116	53	-58	12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8	19	10	-21
건설업	1097	116	-36	1017
운수업	120	169	37	-85
통신업	-119	110	82	-311
금융 및 보험업	240	149	-147	238
사업서비스업	4137	57	437	3644

산본 신도시의 특화산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전국경제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에 비해 지역할당효과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구조효과는 마이너스(-)를 나타난 반면 지역할당효과가 총 성장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1> 산본 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순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51	224	27	21	203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2316	2290	27	-41	2331

## 5. 중동 신도시

중동 신도시의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의 지역할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전국경제성장효과 및 산업구조효과에 비교해 지역할당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 중동신도시 생산형 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제조업	256	16	-18	258
건설업	1695	52	-16	1659
운수업	637	68	15	554
통신업	369	3	3	363
금융 및 보험업	2400	40	-40	2399
사업서비스업	5414	3	24	5387

중동 신도시의 특화산업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변화-할당모형 분석 결과 전국경제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에 비해 지역할당효과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모두 전국경제성장효과 및 산업구조효과는 보다는 지역할당효과가 총성장에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3> 중동신도시 생산형 세부산업별 변화-할당 분석(1995년-2010년)

산업분류	총성장	순성장	전국경제 성장효과	산업구조 효과	지역할당 효과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39	639	0	0	63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3070	3069	1	1	3068

## Ⅶ. 수도권 1기 신도시 산업구조 특성

### 1. 1995년도 1기 신도시 산업구조 특성

1995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을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입지계수 및 변화-할당모형으로 각각의 경제기반을 분석해 신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 결과 1995년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생산형 산업에서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공통적으로 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특성상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입지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초·중등 교육기관의 고용이 우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업도 KT지사 및 우편업 관련 시설들이 신도시로 입지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신도시 건설초기에는 이러한 계획적인 요소들이 고용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생산형 산업에서는 전반적인 산업이 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신도시 건설 초기 주택공급에 따른 부동산 거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입지계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의 경우 시청사가 신도시로 이전한 평촌 산본, 중동이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냈다. 한편 입주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 및 여가 등,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각종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생산 중심의 산업구조가 신도시 건설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4> 1995년과 2010년의 비생산형 산업 LQ

산업분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95	'10	'95	'10	'95	'10	'95	'10	'95	'10
도매 및 소매업	1.28	0.97	1.32	1.14	1.16	1.13	0.86	0.81	0.71	0.74
숙박 및 음식점업	1.04	1.01	1.53	1.35	1.05	1.08	1.25	0.94	0.84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7.92	3.08	7.36	2.41	6.09	2.79	6.77	1.79	9.15	1.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73	0.38	0.50	0.81	2.02	1.28	2.60	1.26	3.00	2.13
교육 서비스업	2.01	1.17	2.55	1.48	2.79	1.83	2.65	2.17	4.24	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5	1.22	1.13	1.54	0.67	1.05	1.29	1.65	0.58	1.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6	0.94	1.75	1.41	0.65	0.99	1.61	1.39	1.64	1.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8	0.91	1.33	1.24	0.83	0.80	1.24	1.42	1.07	1.12

하지만 신도시 건설 초기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겨나는 비생산형 산업의 입지계수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건설 초기부터 생활기반 자족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생산형 보다는 비생산형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산형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형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비중이 낮은 이유는 신도시 개발이 택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해 택지공급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건설되어 계획적인 공단유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용기반성장이 집중적으로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 2. 2010년도 1기 신도시 산업구조 특성

2010년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 특성을 살펴보면 생산형 산업들의 경우 각 신도시들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산업들이 기반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수도권 신도시 특정상 제조업이 입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기반산업으로 나타났다.

비생산형 산업들의 경우 1995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나, 5개 신도시 모두 2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시 내 고용창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5개 신도시의 생활기반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서울시와의 비교에서도 서울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입지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서울과 비슷하여 서울에 의존하지 않고 신도시 내에서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5> 1995년 1기 신도시 생산형 및 비생산형 산업 LQ

구분	산업분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생산형 (고용기반)	제조업	0.03	0.08	0.06	0.05	0.04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48	4.58	4.57	1.57	0.00
	건설업	0.17	0.26	0.31	0.44	0.47
	운수업	0.20	0.32	0.50	0.87	0.82
	통신업	1.23	0.15	1.95	4.81	0.35
	금융 및 보험업	1.11	0.92	1.42	0.79	0.49
	사업서비스업	1.01	0.80	1.91	0.45	0.06
비생산형 (생활기반)	도매 및 소매업	1.28	1.32	1.16	0.86	0.71
	숙박 및 음식점업	1.04	1.53	1.05	1.25	0.84
	부동산 및 임대업	7.92	7.36	6.09	6.77	9.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73	0.50	2.02	2.60	3.00
	교육 서비스업	2.01	2.55	2.79	2.65	4.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5	1.13	0.67	1.29	0.5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6	1.75	0.65	1.61	1.6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0.98	1.33	0.83	1.24	1.07

앞서 입지계수가 높은 기반산업들은 주로 3차 서비스산업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형성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전통적인 경제기반이론은 서비스활동이 지역경제개발에 전체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비기반산업으로 간주해 왔으나 최근 서비스의 성장이 고용, 소득, 인간욕구충족 등을 통해 지역개발을 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Illetris, 1996). 또한 서비스성장은 국가의 빠른 성장지역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서비스는 단순하게 성장을 허용할 뿐 아니라 성장에 기여한다(Kirn, 1987). 즉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서비스 산업 성장은 신도시의 고용,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고 높은 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만큼 신도시들이 고용기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다.

아울러 단순히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가 비생산형에서 생산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분당의 IT산업, 일산의 미디어, 평촌의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산본과 중동의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각 신도시별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보다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5개 신도시의 산업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6> 2010년 1기 신도시 생산형 및 비생산형 산업 LQ

구분	산업분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생산형 (고용기반)	제조업	0.12	0.22	0.13	0.06	0.0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2	0.93	0.88	0.74	0.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2	0.27	1.47	0.46	0.09
	건설업	1.22	0.76	0.60	0.90	0.78
	운수업	0.39	0.35	0.47	0.48	0.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68	1.29	1.19	0.59	0.71
	금융 및 보험업	0.66	1.48	1.82	0.74	1.7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2	1.25	2.64	0.61	0.8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9	0.92	0.42	3.32	2.49



비생산형 (생활기반)	도매 및 소매업	0.97	1.14	1.13	0.81	0.74
	숙박 및 음식점업	1.01	1.35	1.08	0.94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8	2.41	2.79	1.79	1.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38	0.81	1.28	1.26	2.13
	교육 서비스업	1.17	1.48	1.83	2.17	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2	1.54	1.05	1.65	1.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 비스업	0.94	1.41	0.99	1.39	1.0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91	1.24	0.80	1.42	1.12

### 3. 수도권 1기 신도시별 산업구조 특성

#### 1) 분당 신도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들이 20여년이 지난 현재 각각의 서로 다른 산업구조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건설 초기 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업 및 소수의 사업서비스업으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 현재 서울보다 특화된 IT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분당 신도시는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IT산업의 뚜렷한 특화를 보이고 있다. 분당 신도시 건설 초기 성남시는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창업자금 지원, 정보통신업협회의 회와 연계한 대학원 설립 유치 등 다양한 노력 등으로 많은 IT기업들을 유치시켰다. 서울 강남과의 가까운 거리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테헤란로에 위치한 많은 IT기업들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로)를 거쳐 분당신도시로 이전하였다. 현재 NHN과 휴맥스, SK C&C 등 국내의 대표적인 IT기업들을 비롯해 국내외 IT기업들이 분당에 새 터전을 마련하면서 신IT벨 리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 건설업, 금융,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으로 분당 신도시의 고용자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분당신도시가 과거 베드타운 도시에서 벗어나 도시 내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7> 분당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1995년 기반산업	2010년 기반산업
<b>전기업</b> <b>중기 및 운수 공급업</b> <b>우편 및 소포 송달업</b> 통화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b>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b> <b>전기통신업</b> <b>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b> <b>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b>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토목 건설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연금 및 공제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2)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의 경우 1995년 건설 초기 분당과 마찬가지로 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금융업종 및 소수의 사업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010년 일산은 지상파 방송국을 유치하는 등 미디어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출판문화단지,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지식기반정보단지, 덕은동미디어벨리, 상암DMC를 잇는 지식기반정보산업벨트 구축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지식기반정보단지에는 일산신도시에 입자할 예정이며 영상산업관련 업무시설, 방송 및 멀티미디어 연구 및 개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는 이미 일산MBC를 시작으로

관련 미디어산업 입지한 상태이며 지식기반정보단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분당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건설업, 금융,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 형성으로 일산 신도시의 고용자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일산신도시가 과거 베드타운 도시에서 벗어나 도시 내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8> 일산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1995년 기반산업	2010년 기반산업
<b>전기업</b> <b>중기 및 온수 공급업</b>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통화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b>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b> <b>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b> <b>전기통신업</b>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약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건물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3) 평촌 신도시

1995년 평촌 신도시 건설 초기의 산업구조는 분당 및 일산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중심의 기반산업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과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건설초기부터 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평촌 신도시는 1995년에 이어 연구개발 관련 산업과 건축 엔지니어링 및 학습학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LG연구단지 등과 같은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평촌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학교와 과천 정부청사가 자리잡고 있어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며, 안양시에서도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학과 연구기관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학습학원의 특화는 평촌신도시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서울 강남과 버금가는 학원가는 평촌신도시성장에 핵심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변도시들의 수요까지 충족시키고 있어 평촌신도시의 학습학원산업은 더욱 발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촌 신도시도 제조업, 건설업, 금융,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으로 평촌 신도시의 고용자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평촌 신도시도 과거 베드타운 도시에서 벗어나 도시 내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9> 평촌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1995년 기반산업	2010년 기반산업
전기업 중기 및 온수 공급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출판업 철도 운송업 우편 및 소포 송달업 전기 통신업 통화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우편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전문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4) 산본과 중동 신도시

1995년 산본 신도시의 경우 수도사업 및 우편업, 전기 통신업 등 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중동신도시 또한 전기 및 통신 공사업만이 기반산업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2010년 산본과 중동 역시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형성해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다. 군포시는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정보 전자상품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고, 부천시는 기존의 공업시설과 연계시켜 문화문컨텐츠 산업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산업지원서비스업 이외에 뚜렷한 특화산업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분당, 일산, 평촌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성 보다는 주택공급에

목적성을 두고 계획된 신도시들이기에 다양한 고용기반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0> 산본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1995년 기반산업	2010년 기반산업
수도사업 우편 및 소포 송달업 전기 통신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육상 여객 운송업 통화 금융기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건물 건설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연금 및 공제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표 51> 중동 신도시의 기반산업 변화

1995년 기반산업	2010년 기반산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도로화물 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통화 금융기관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험업 토목 건설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VIII.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신도시별로 시대별 변화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기반은 그 도시의 위상과 특성을 결정 짓는 주요한 요소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어떠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신도시별 자족성은 물론이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용이 할 것이며 향후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제기반을 파악하기 위해 신도시들의 산업을 생산형과 비생산형으로 구분하여 입지계수와 변화-할당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또한 분석결과를 서울시와 비교하여 기반산업들의 특화 수준을 알아보았다.

1995년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초기는 생산형 보다는 비생산형에 가까운 산업구조를 나타냄으로써 도시 내의 고용에 있어 충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건설 초기만 해도 생산형 산업구조는 당초 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2010년도의 1기 신도시들의 경제기반은 비생산형에서 생산형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먼저 2010년 생산형 산업들의 입지계수 분석결과 분당은 IT, 일산은 미디어, 평촌은 연구개발, 산본과 중동은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각 신도시마다 특화된 산업들이 나타났으며 서울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높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신도시 특성상 제조업 성장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비생산형 산업들을 분석 한 결과 5개 신도시 모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해당 도시내에서 생산되는 생활기반 자족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과의 비교에서도 서울평균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도시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 경제기반 형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주거중심의 택지개발로 건설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고용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고용기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개발 정책은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과제였지 때문에 도시 초기에는 침상도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고용기반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신도시의 인구 대비 고용자수 비율은 이미 수도권 도시들의 수준을 넘어섰거나 비슷하게 도달하고 있었다. 또한 입지계수 분석 결과 신도시별로 특화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변화-할당 모형으로 지역 할당 효과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산업구조는 건설초기 비생산형 중심에서 현재는 생산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초기 경제기반은 고용기반보다는 소비중심적이었으며, 계획적인 요소가 고용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용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초기 산업구조는 도시민이 필요한 생필품 판매업, 도시기반시설관련 업종, 신도시로 이전된 공공행정 및 통신업 등 소비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시청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계획적 요소들이 산업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비중이 낮은 이유는 신도시 개발이 택지개발 사업촉진법에 의해 택지공급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건설되어 계획적인 공단유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생산형 중심의 산업구조가 점차 생산형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면서 도시 내에서 다양한 고용이 창출되어 바람

직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셋째, 수도권 1기 신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중심의 산업구조를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생산형 산업 중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구조변화가 일어나 고용의 질적 제고와 함께 고용기반 자족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의 고용구조변화는 당연한 사실일 수 있겠지만, 분당의 IT, 일산의 미디어, 평촌의 R&D, 산본과 중동의 산업지원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 고용을 창출했다는 사실은 5개 신도시 산업구조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서비스업산업은 투자, 쇄신, 기술변화에서의 역할과 함께 경제개발과정에서 공간적 변이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어 도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3가지 결론을 종합해볼 때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건설초기에는 생산기반보다는 비생산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현재 신도시별로 특화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함께 고용중심의 생산형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시점을 줄 수 있다.

첫째, 고용기반의 생산형 산업들은 입지적 요건, 주변 환경, 인프라 시설,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신도시별 특화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특화산업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분당의 경우 많은 IT 산업들이 판교로 이전하는 추세이며, 서울 DMC 영향으로 일산 미디어 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20년이 지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벌써부터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향후 건설완료를 앞두고 있는 신도시들의 고용기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 유치와 함께 질 높은 도시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특정 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질 높은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편이시설을 포함한 문화·예술분야의 자족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신도시가 비생산형에서 생산형으로 고용구조가 형성되었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자족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창출하는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하기 좋은 주변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은 단기간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이 유동성 있는 계획을 통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신도시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권영종(2003),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방향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 권유철(2002), 자족 가능한 신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호(2001), “일산 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화 ‘도시 중심지’의 재구축”, 「도시문제」, 36(386): 41-52
- 김상희·김현민(1993), “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논집」, 25: 258-929
- 김성배·이건영(1995), “신도시와 개발이익”, 「국토계획」, 30(5): 197-213
- 김영모(1999),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 김현수(2005),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기반 실태분석과 강화방안”, 「국토계획」, 40(6): 83-94
- 김현수(2007), “2기 신도시의 평가에 관한 연구: 1기 신도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4): 249-270
- 김형우·김호연(2011),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서울 거주자의 통근통행패턴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3): 437-451
-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총람 1981-2004」
- 배순석(2000),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국토연구원.
- 송영섭·이동규(1999), “수도권 신도시 평가에 관한연구”, 「과학기술연구논문집」, 10(1): 341-364
- 신상영(2003), “직주접근성과 통근통행”, 「국토계획」, 38(4): 73-87
- 신원득(1997),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인구변화와 특성”, 「경기연구」 2: 83-100
- 안국현·이명훈(2006), “수도권 도시의 자족도에 관한 연구: 수도권 신도시 소재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8(3): 233-253
- 안효빈(1996), 수도권 신도시의 자족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인하·김호연(2003), “수도권의 통근통행 패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6): 87-97
- 이상명(2011), 신시가지의 고용 자족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무·안건혁·안내영(2001), “분당 상권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7): 271-284
- 이헌주 외(2012), “수도권 제1기 신도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재편방안 제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62), 2012.5, 3-16
- 이희연·이승민(2008),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에 미친 영향”, 「대한지리학회」, (43)4 : 561-579
- 임윤수(1996), “수도권 신도시 정책에 관한 분석”, 「논문집」, 14: 485-495
- 임재현·한상삼·정승연·최신용(2008), 「주택정책론」, 서울 : 부연사
- 장준상·이창무(2006), “수도권 5개 신도시 자족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41-56
- 전명진(2000),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통근통행 특성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2(2): 157-170
- 정다운(2010),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자족성 및 중심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103-116
- 정환용(1997), “서비스산업과 도시성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9(1): 19-37
- 토지구획연구원(1991), 「수도권 5개신도시 개발현황」
- 하성규(1998),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의 주거이동 및 통근통행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1): 81-91
- 한국토지공사, 「토지개발사업총람 1976-2004」
- 한국토지공사(1999), 「수도권 신도시 종합평가 분석 연구」,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2006), 「살고 싶은 신도시 모델 설정: 신도시 평가」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구획공사(2009), 「2기 신도시 중간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허재완(2001), “수도권 신도시 경제기반 평가”, 「경기논단」, 3(3): 65-83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_\_\_\_, 「인구총조사」, 각년도.

Bourn, L(1982),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Gideon G(1976), *New Town Planning : Principles & Practice*, John Wily & Sons.

Illeirs, Sven(1996), *The Service Economy: A Geographical Approach*, Chichester: John Wiley & Sons.

Kirn, T.J.(1987), *Growth and change in the service sector of the US: a spatial perspectiv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7;3: 353-372

Lloyd Rodwin(1981), *Cities & City Planning*, Plenum Press.

Abstract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of the 1st  
New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dvised by  
Prof. Choi, Mak Jung

August, 2013

submitted by  
Lee, Syung U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1980's, 5 new town have been construc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objectives of supplying new houses and disperse over-population of Seoul. Through 20 years, the theme of self-sufficiency of these new towns were discussed by several studies. Most of the studies before 2000, criticized about the lack of self-sufficiency. But most of the resent studies turns positively asserting that the 5 new towns are showing self-sufficient by several ways. Before discussing self-sufficiency of a city we must first discuss the economic base of a city. Economic base of a city is an important element which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 of the it. That is why analyz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5 new towns are needed to determine their economic base to find thei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5 newtowns built o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determine their economic base to introduce their characteristics and future challenges.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tructure, the study analyzes their economic base by the Location Quotient and Shift-Share Model using the business statistics through 1995 to 2010. With the research result, the study focuses on the type of business that settles on the early year of the construction. Also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after 15 year of construction of each 5 new towns.

As a result, on the early year of construction most of the employees consists on retails, realestate trade, and urban infrastructure. Recently the employment has turned based on service industry forming a high-income structur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Also the employment structure changes are hard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can be shorten as following. First, employed based industrial structure have been settled after 15 years on the 5 newtowns. Second, at the early years of construction, the industrial structure consisted on non-productive industries, however as the newtowns have been settled after 15 years, the industries structure has changed to productive. Third, this productive industrial structure shows specialized industries on each newtowns.

With the results three implications are as following. First, each newtowns needs an urban management system to maintain these specialized industries. Second, for the future 2nd newtowns around Seoul, high quality of urban services are needed to attract specialized industries. Third, an economic base of a city can not be determined in a short time. Therefore, to secure an economic based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specific employment plans must be established. Also the plan must be considered in a long-term point of view with active and flexible abilities that can respond against the environmental changes.

◆ Key words : new town, industrial structure, economic base,  
economic based self-sufficiency

◆ Student Number : 2007-22318